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 김 민 화(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신 혜 은(성균관대 아동학과 연구교수)

보조연구원 : 정 혜 숙(성균관대 아동학과 박사과정)

장 해 진(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본부)

2007년 12월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연구기관 책임자 : 윤 석 범

연구기관 : 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본부

머리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보고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에게 한국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으로 한국문화와 정서에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추후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부진 및 차별,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영, 유아기 때는 언어 및 사회적응에 대한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인식한다면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격차(언어, 사회적응)가 누적되어 결국 소외된 소수 집단이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 유아시기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김민화교수(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와 신혜은교수(성균관대 아동학과 연구교수), 정혜숙원장(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을 연구원으로 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 교육 교재 개발에 필요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주여성 즉 부모로서의 역할 및 교사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해주신 연구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24일

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 본부장 윤석범

<목 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선행연구 검토	12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12
2)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16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18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20
5)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22
3.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26
II. 한국어학습교재분석.....	28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2. 성인 교재분석	30
1) 교재개발의 철학적 측면	30
2) 학습자의 특성고려 측면	35
3) 교육의 체계적 측면	40
4) 교육의 효과 증진 측면	44
3.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 현황.....	49
III.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심층면담분석	50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50
2. 연구결과.....	58
1) 어머니와 교사가 바라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전.....	58

2)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자녀의 한글학습 특성 비교.....	59
3)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한글 가정교육의 어려움	64
4) 취학 전 국어(한글) 교육의 필요성.....	71
5) 한글교육의 바람직한 형태	73
(1) 교재	73
(2) 교사	78
(3) 교육내용	81
(4) 교육방법	87
(5) 어머니의 참여촉진을 위한 전략.....	93

IV.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제 안.....99

1.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	99
2.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의 철학과 접근	101
3.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체제.....	106
4. 다문화 가정 방문학습 한국어 교육의 장점.....	107

V. 방문 학습지원 모델 구상 및 향후 제품 방향

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문학습지원 표준모델.....	109
2. 향후 제품 방향: (주)웅진씽크빅	116

참고문헌	124
부록	127

표 목 차

<표 1>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정의.....	13
<표 2>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비율(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중 재구성)...	14
<표 3> 국제결혼가정 재학 현황 (2007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15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집단 따돌림 이유(조영달, 2006b에서 인용)	18
<표 5>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재	28
<표 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2005) 교수요목	41
<표 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단원 구성	42
<표 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 등장인물 설정.....	48
<표 9> 개별면담 참여 한국어교사 인적사항	52
<표 10> 집단면담 참여 교사(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인적사항	53
<표 11> 면담참여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인적사항.....	55
<표 12> 전달모델과 상호교류 모델의 비교.....	105
<표 1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목표 예.....	111
<표 14-1> 교재 1단계 구성안	118
<표 14-2> 교재 2단계 구성안	119
<표 14-3> 교재 3단계 구성안	120
<표 14-4> 교재 4단계 구성안	121
<표 15> 학습관리모델	122
<표 16> 교육 자료 개발 내용과 기대성과	122
<표 17> 교재개발 추진일정.....	123

그 립 목 차

<그림 1>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추이(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중 재구성) ...	14
<그림 2>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출신국 현황(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재구성)	15
<그림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어 초급(2006.12).....	37
<그림 4>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스템즈 모델의 적용.....	102
<그림 5> 향후 개발할 단계별 제품	116
<그림 6> 제품소개 예시	11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던 세대들은 국민의례를 하는 행사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고 언제 바뀌었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이제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로 나라의 주인 됨에 민족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일민족’의 구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족성과 국민성을 동일시 할 수 없게 된 이 시대의 현실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증가되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서구의 여러 나라가 그랬듯 다양한 이민족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민족들의 국내이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국제결혼, 노동인력의 이주, 전문직 인력들의 귀화는 물론 이민족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탈북 새터민들의 국내체류로 이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주민들의 국내 적응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됨을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와 이문화간 갈등의 해결, 이주민들의 인권보장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의 적응은 당대의 해결과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주민들의 자녀역시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수의 이주민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낙후된 환경과 제한된 기회,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감 문제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성장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은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그들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체류 이주민들 중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동일한 국적 또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가정과 달리 한쪽 부모만이 다른 국적인 경우 그 자녀는 가정 밖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생활에서도 각 부모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며, 이것이 가정 밖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보이기 쉽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인 다문화가정 중 특히 국제결혼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적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핵심문제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국제결혼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 부모와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국제결혼가정은 이 땅에 먼저 터 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이방인인가? 아니면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할 사람들로서 존중받는 또 하나의 우리인가? 이주민들이 증가하던 초기에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빨리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교화시켜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관점은 당대의 이주민들은 물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세계화시대에 문화 간 연결 부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국가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며 이들 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과 관계된 지원 사업들은 그들을 능력 면에서 결함이 있고 환경과 기회 면에서 결핍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 스스로가 이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요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음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결혼가정 구성원과 그들과 접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가정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감을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개발할 교육적 지원방안의 기초관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적응의 어려움’이라는 용어규정으로 이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보다는 ‘적응의 어려움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문제로 다루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이미 다양한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들을 통해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이 차세대, 즉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과 관계된 문제로 보는 관점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이주민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해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이 보다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들고 있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교육과 관련

된 영역에서의 제한된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다. 자신의 자녀가 외국인 부모, 특히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발달의 불리함, 이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 더 나아가 자신이 부모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과 수치심이 부모세대는 물론 자녀세대에서도 적응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적 맥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부모로서의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가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은 양자 모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부모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가를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한글’이다. 이들이 대답하는 ‘한글’은 단순히 한글자모의 형태인식 차원이 아닌 생활을 위한 긴요한 소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글’을 말한다. 이러한 문자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는 ‘한글’을 본 연구에서는 ‘국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령기 부적응이 또래관계 이외에도 기본적인 학습부진에서 비롯되며, 더 구체적으로 국어학습의 어려움이 다른 교과목들의 학습에 근본적인 방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은 학령기 학습지도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범위를 넘어선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교육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교육지원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학습 지원이며, 이 부분이 자녀학습지도를 위해 자신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에 필수적인 국어학습의 내용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는 ‘**언제부터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미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령기 부적응문제가 도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 특수 교육적 접근,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의사소통과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문제해결은 되도록 이른 시기에서부터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언어획득 이전시기에서부터 언어획득의 결정적 시기, 그리고 문어적 능력이 배양되는 생의 초기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언어-문화적 경험이 부족하여 이후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령전기에서부터 양질의 양육과 교육 경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어학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고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학령기 아동들에 비해 학령전기 아동의 비율이 훨씬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문제에 봉착한 학령기 아동들보다 앞으로 문제에 접하게 될 아동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며, 이러한 분포로

추측컨대 앞으로 태어날 아동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도우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자녀의 학습문제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부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그에 전문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의 현실적 상황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들의 어려움은 자신의 국어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와 적응의 문제 이외에도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에는 가정적, 사회적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교통과 사회지원체계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우 부모가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적합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정 내 양육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국제결혼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환경의 실질적인 변화와 부모의 역량증대를 꾀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될 결정적인 시점으로서 취학 전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기초적 사항으로서 부모의 역량증대 및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의 근거로서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모형이나 이론들을 무차별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되어왔던 교재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현장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와 현재 자녀교육의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 어머니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 내용과 형태를 추출하고, 구현을 위한 현실적 여건과 접목시켜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2% 정도가 다른 언어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이수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차로 늘어나 2007년 현재 15만 가구 정도로 파악되나 2020년이 되면 10배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영순, 2007b).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당세대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이슈만이 아니라 앞으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용어로 지칭되는 다문화가정은 구성원들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에 있어 그 용어만큼이나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에 용어 정의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1.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정의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동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동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국내에 영속적 거주를 가정하기 어려우며, 새터민 가정의 경우 그 가정이 겪는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겠지만 피부색과 생김새 같은 외모상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외국인 부모와 그 자녀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게 될 것이며, 이들의 자녀는 사회구성원과 자신의 가정 사이의 문화적 이질감은 물론 부모의 서로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도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문화경험

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1990년도 1.2%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도 3.7%로 증가 했으며, 2004년도 11.4%, 2005년 13.6%, 2006년 11.9%로 2004년도 이후로 전체 결혼 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인구동태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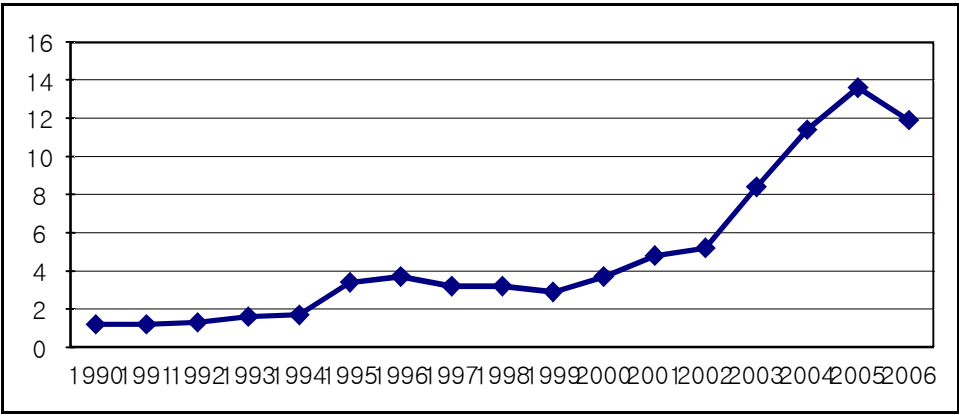


그림 1.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추이(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중 재구성)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76.1%가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에 해당된다.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아내와의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인구동태 DB).

표 2.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비율 (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중 재구성)

년도 구분	구분	국제결혼 건수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05	인원(명)	43,121	31,180	11,941
	비율(%)	100	72.3	27.7
2006	인원(명)	39,690	30,208	9,482
	비율(%)	100	76.1	23.9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결혼정보회사와 사적인 경로를 통한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과 통일교를 통한 일본, 필리핀, 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김갑현, 200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아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 이후 베트남 아내와의 결혼 건수가 증가하여, 2006년 현

재 외국인 아내와의 국제결혼 건수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순위로 급부상되었다. 특히 농업·농림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베트남이 국적인 경우가 2005년 53.2%에서 2006년 67.9%에 이르고 있는(통계청, 2007, 인구동태 DB)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베트남 어머니의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구 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등으로 국제결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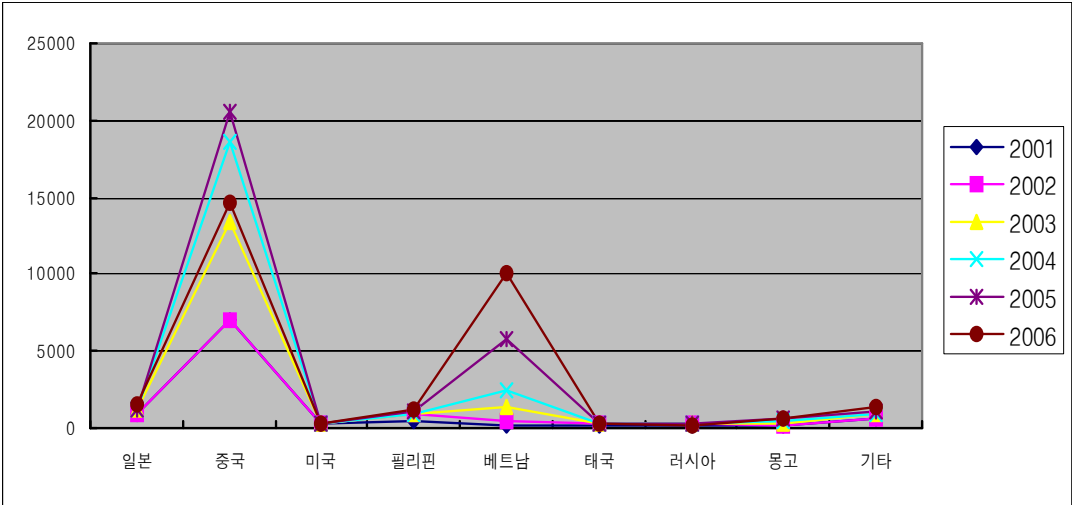


그림 2.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출신국 현황(통계청 2007 인구동태 자료 재구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의 증가 또한 기명한 사실이다. 2007년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13,445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 차지(중 11.8%, 고 3.2%)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07년 4월 기준).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영달, 2006a).

표 3. 국제결혼가정 재학 현황 (2007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040	391	283	421	279	191	177	2,283	729	642	950	970	1361	651	968	108	11,444
중	234	67	33	54	32	30	22	460	67	66	131	99	101	53	125	14	1,588
고	73	25	8	20	11	9	4	127	11	15	35	10	17	18	27	3	413
합계	1347	483	324	495	322	230	203	2870	807	723	1116	1079	1479	722	1120	125	13,445

보건복지부(2005)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3세 이하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총 50%에 이르는 수가 학령전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수를 고려해 볼 때 현재 학령전기 자녀의 비율은 50% 이상을 상회할 것이며, 이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드러나면서부터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학교 안에서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급급한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어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이전 시기부터 무엇이 이들 어려움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파악하고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앞으로의 예방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어머니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고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오성배, 2005).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물리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양질의 보살핌을 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양육 방식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댁식구들을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양육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며, 어머니의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의 압력으로 인해 서툰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로도 자녀와 소통하는 것을 금지당하기 쉽다.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포함하여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경험하는 빈곤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기보다는 한 가정의 생계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주부인 동시에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에도,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부업을 찾을 때에도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은 소위 말문이 트이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전후가 매우 중요하고 이시기에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한국어 습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갑현, 2007). 마찬가지로 왕한석 등(2005)은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①한국체제기간, ②가정에서의 인풋, ③외부와와의 접촉, ④개인적 동기 및 학습능력, ⑤교육배경 및 인지적 능력, ⑥개인의 성격, ⑦한국어 학습연령, ⑧모어와 한국어의 구조 유사성, ⑨체계적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의 차이, 모국어의 언어적 특성의 영향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지원과 외부접촉, 체계적 교육은 충분한 상황적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제결혼 여성들은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입국과 동시에 결혼과 출산이 이어져 체계적인 교육과 외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 역시 자녀의 연령이 어린 시기에는 바램은 있으나 실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음에 좌절하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즉, 국내 체류 초기에 해당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린 시기에는 문화적 부적응과 소외감이 이들이 겪는 주된 정서적 어려움이었다면,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좌절이 정서적 어려움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제결혼가정 사이에도 어머니의 성격특성, 출신국, 학력, 가족들의 지원 정도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의 적응과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인차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신이 적응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자녀양육에서부터 좌절과 무능감을 느끼고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기 쉽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있어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가는 ‘양육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반가정의 자녀에게도 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임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안지영 & 박성연, 2002).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은 물론,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 자녀를 교육하는 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학업에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 등과 관련된다(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er, 1997; 신숙재, 1997; 최형성, 2006).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 그 자체보다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Ardelt & Eccles, 2001; 이숙, 최정미, 2003; 최형성, 2006). 반면,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

아직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례와 실태조사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이들의 어려움으로 볼 때 자신이 부모로서 유능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위한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가 발달시켜나갈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적응적인 요소들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한국어 능력임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나, 이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을 위한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능력과 자녀양육에서 갖는 효능감은 양쪽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은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반대로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위한 학습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이들의 학교부적응 문제이다. 조영달(2006b)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제를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면으로 나누어 고려했다. 먼저,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이른바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는 가정과 부모에 대한 자신감과 존경심의 결여와 자존심의 상실, 자기 비하 등으로 이어져서 학업은 물론 생활의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영달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한바 있다. 10명 중 2명꼴에 해당하는 집단 따돌림의 비율은 우리나라 일반가정의 자녀들이 따돌림을 받는 비율과 유사하지만, 따돌림의 이유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의 이유로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은 ‘잘난 척(29.4%)’이 가장 큰 이유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영달, 2006b).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집단 따돌림 이유(조영달, 2006b에서 인용)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에게 더 큰 좌절과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중,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또래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 또한 안고 있는 셈이다(조영달, 2006b).

그러나 최근 권순희(2007)의 연구보고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이 무조건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수용하는 정도는 이들의 외모특성과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권순희의 사례보고에 따르면,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아동의 경우 또래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툰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한다. 또한 외모에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자신 있게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경우 의외로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필리핀 어머니를 둔 자녀의 경우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어 오히려 또래들 사이에 부러움을 사는 관계의 역전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차이에서도 올 수 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부색과 생김새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향한 학교체계, 교사, 또래들의 인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권순희, 2007). 게다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능력 있는 교사의 부족 또한 이들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외부적 요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또한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 오성배(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가치관에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이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래들의 놀림은 대인관계에서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며, 학교생활에서도 담임교사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도 이들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내적 자신감의 결여가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학업성취 면에서의 부적응과 관련된다. 학업 성취 면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며,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름으로 해서 지식은 물론 정서와 태도에서까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조영달, 2006a). 많은 국내연구들은 그 이유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역시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갑현, 2007; 오성배, 2005, 2007; 정은희, 2004; 조영달, 2006 a, b; 홍진주, 2004). 이러한 학습 결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골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져서, 아동 스스로 혹은 각 가정의 도움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이는 동료 학생들의 학업 효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조영달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과 지도 보충 자료 및 상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지원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생활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집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조영달(2006a)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중 첫 번째로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언어능력의 문제는 오성배(2005, 2007)의 사례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성배는 면담과정에서 어머니가 한글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발음과 어휘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자녀가 언어체계형성에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다.

조영달(2006a)의 설명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는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능력의 부족은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오성배(2005)의 사례연구에서도 이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어휘력·쓰기·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구나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난다는 것이다(조영달, 2006a).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체’나 ‘장애’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진정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언어발달의 기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일단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언어획득의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 어머니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비롯하여 한국어 구사와 이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의 자녀에게 적절하고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주지 못하는 데서 언어능력지체와 학습부진을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유아기의 음운 감수성이 이후 읽기능력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이차숙, 1999; 조준수, 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기 한국어자극의 부족이 이후 언어발달의 문제와 학습부진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준수의 연구에서 음운 감수성의 훈련을 통해 읽기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훈련을 통해 음운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보이는 현상 그 자체로 이들의 음운감수성의 결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능력의 결함이나 혹은 환경적 기회의 부족이나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서 언어치료적인 접근을 위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연실(2007)의 연구는 이야기 능력으로 측정한 언어능력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자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일찍 이루어진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의 68%가 언어발달지체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 두 연구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연구대상의 연령이다. 최연실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은희의 연구에서는 3-5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언어적 환경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언어적 환경은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이외에도 또래, 교사,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경험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학령기 이전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에는 부모가 언어적 환경의 주된 영향요인이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받는 한국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가정 자녀들의 기준에서 보면 언어발달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능력이 학령기에 가서는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언어능력의 결함이 있기보다는 기회의 부족함에 기인된 것임으로 이들은 ‘결함’이나 ‘지체’라는 용어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흔히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거론하면 이들이 일반가정의 자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의 특성에서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질적 혹은 양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를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두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심층면담 연구들의 부분적 내용들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 언어발달의 질적

차이로서의 ‘지체’보다는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환경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상될 수 있는 양적 ‘지연’의 문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학령기에 나타내는 학업부진이나 적응의 어려움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언제,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논하기 위한 것이다. 정은희(2004)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경험이 대부분 없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강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외국인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연차수가 짧고 대부분 국내체류와 동시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 어머니가 어린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적절한 한국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는 자신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고, 구지 교육기관을 찾아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이들의 자녀 또한 어머니 이외의 사회적 경험과 교육경험을 통해 부족했던 언어적 경험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적 대안들을 모색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는 학령기 이전일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이 경험할 어려움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5)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각 정부부처에서는 이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 ‘여성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갑현(2007)의 연구에서 개괄한 내용을 재정리 하면서, 각 정부부처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서비스와 함께, 자

녀교육, 가족상담 등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를 발간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 어로 번역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 문화 적응, 가족생활 적응 및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족지원센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추진해 온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능을 맡고 있는데, 2007년 현재 전국에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핵심적인 교육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이며 개인 및 가족상담, 교육 시 자녀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한 문화소외계층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이주노동자 등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발맞춰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글교육을 지역거점 10개소로 확장 운영할 예정이고, 이주노동자 대상 한글교실 20개소의 운영을 통해 연간 200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교재 개발, 이주외국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미취학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지원, 이주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국립국어원과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도 200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성단체 등에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수법을 교육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NGO들과 함께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 확장하고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권확보와 교육적 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을 정책의제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 단위 종합 지원프로그램인 ‘결혼 이주여성 정착 및 자녀 정체성 강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대구, 경북 지방의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두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가족생활과 일상생활의 적응을 위한 교육, 역사, 문화체험 등을 기본으로 하여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교육청 단위로 각 급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국제결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주여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지역의 현황에 맞추어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을 넘어서면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단체와 여성회관 등에서 관련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지역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청과 도 단위 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주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과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노동문제, 생활문제, 국제결혼 등의 상담,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이해교실 등의 문화프로그램, 국제결혼 여성 생활 나눔 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점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과 국적문제, 결혼 후 가족갈등문제(빈곤, 언어, 자녀양육, 가족폭력), 체류자격 및 복지 수혜자격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었지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적응교육대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말과 글을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갑현, 2006).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한계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내용에 많은 지역적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

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성격과 직면여건에 따라 각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역 내 실태조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둘째, 프로그램의 기간 면에 있어서, 국제결혼가정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개설한 사업들은 한국어와 한글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회성 행사에 가까운 한국 문화체험, 강연, 요리실습 등이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념을 위해 방문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사업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개개 국제결혼가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국제결혼가정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들이 받는 한국어 교육은 어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 면에서는 피상적인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 교육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가 자녀양육과 가정의 생계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피상적 수준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합목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행히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한국어교재들을 발간하고, 이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국어로의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들에도 아직까지 자녀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차이의 극복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수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어머니들은 일단 이들의 적극성이나 교육적 수준, 그리고 가정에서의 지원 정도가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도와주고자 설정한 국제결혼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외국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의 가정 환경적, 교육 환경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껏해야 어머니가 교육을 받는 동안 놀이방이나 다른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자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학령기에도 학교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일일행사 정도의 수준이며, 일부 방과 후 교실과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이들의 연령별, 상황별로 연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3.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2% 정도가 다른 언어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는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다. 이들의 문제는 비단 어머니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곧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일반가정의 자녀들과는 다른 환경적 여건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아동만을 위한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이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를 공통분모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어려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책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이들을 직접 만나고 관찰한 실태조사 연구에서조차 ‘지체’나 ‘장애’라는 말로 이들이 마치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이들’과 ‘우리’라는 말로 구분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지만, 이들이 성장하면서 결함 아닌 결함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시기적절한

도움의 부재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도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영유아기 시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적절한 교육과 사회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서비스의 방법으로 방문교육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미 수많은 일반가정 자녀들은 영·유아기부터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는다. 이에 대한 찬반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국제결혼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방문교육의 장점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시기부터 국제결혼가정에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방문교육을 제안하고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가를 고려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영유아기 한국어 교육과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며,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로서 요구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을 위해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국제결혼가정의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어교사,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취학 전부터 실시될 수 있는 한국어방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II. 한국어 학습교재 분석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분석 교재선정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의 한국어 교육방안 모색을 위한 본 연구에서 이들의 어머니가 어떠한 내용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자녀들은 어떠한 내용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국어 교재는 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교재들은 최근에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 교재에 비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교재는 일반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재는 전무한 상태여서 이들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 형편이다.

표 5.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재

대상	분류	교재
성인용	대학부설 어학원 저	한국어(서울대 언어교육원, 2000) 한국어(연대 한국어 학당, 1994) 한국어(외대 한국어 문화교육원, 2007) 말문이 트이는 한국어(이대 언어교육원, 19991) 한국어 중급1(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부, 2002) 쉽게 배우는 한국어-초급 듣기 말하기(부산외대 한국어 센터, 2007. 3)
	국가기관 저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여성가족부, 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국립국어원, 2007. 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국립국어원, 2007. 6) 초급 한국어 말하기(국립국어원 한국어 세계화 재단, 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어 초급(국립국어원, 2006. 12)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에서는 먼저, 현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 지역의 여성복지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부설 어학원 발행 국어교재와 국가기관이 발행한 국어교재, 그리고 최근 국제결혼 이민여성들을 위해 개발된 교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의 내용분석을 하고자 했으며, 선정된 한국어 교재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시중의 모든 교재를 고려할 수는 없었지만 선정된 교재들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들의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원리와 이에 따른 필요한 제반 요건을 검토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은 일반 아동용 교재를 분석하는 대신 III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심층면담분석을 통해 이들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교재나 교사 등 구체적인 교육적 실제의 방안을 검토 하였다.

2) 교재 분석 기준

위의 한국어 교육 교재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본 연구자들은 Grant(1987, 재인용)가 제시한 8가지 교재평가의 기준인 의사소통성, 목표성, 교수성, 부교재의 활용 가능성, 학습자의 목표어 수준, 매력, 학습자의 흥미, 검증 가능성과 박영순(2007a)이 제시한 교재개발의 7가지 원리인 철학, 학습자 중심, 흥미유발, 지적 호기심 자극,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에 의거한 내용, 정확하고 표준적인 내용,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고 목표언어 신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노명완(2001), 박갑수(2006)의 등이 제안한 개발 원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본 연구과정에서 만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현장 교사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의 분석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교재 분석 평가의 기준인 동시에 교재 개발의 원리이다. 분석의 준거는 4가지 범주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교재가 어떤 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

1. 다문화 가정 학습자에 대한 인간관
2. 다문화 가정 맥락에서의 언어관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가?

1. 다문화 학습자의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재인가?
2. 다문화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한 교재인가?
3.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교재인가?

4.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가?(한국에서의 적응, 자녀 교육 등)
5. 다문화 학습자의 생태적(주거지, 삶의 방식, 대중매체 등 구어나 문해 환경의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요구가 반영된 교재인가?

● **교재의 체계적 측면은 어떠한가?**

1.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 문법요소, 어휘, 문장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재인가?
3. 구어와 문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조화를 이루는가?
4. 부호중심 분절적 언어관과 총체적 통합적 언어관을 동시에 고려하는가?
5. 자기 평가, 과정 평가를 고려한 교재인가?
6. 실생활에서 유용한 의사소통을 지닌 교재인가?

● **교재의 효과 증진 측면은 어떠한가?**

1.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 1-1 교재 내용 자체가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풍부히 하고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가?
 - 1-2 삽화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적절하고 흥미로운가?
 - 1-3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는가?
2.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 2-1 한국 문화의 이해를 풍부히 하는가?
 - 2-2 한국 문화를 넘어 다문화적 관점의 개방성을 취하고 있는가?
3. 학습자의 지적 욕구 충족시키는가?(국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녀교육이나 역사, 자연환경 등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인가?)

2. 성인 교재 분석

1) 교재의 철학적 측면

한국어 교육 교재가 어떤 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첫째는 학습자에 대한 관

접이다. 즉 누구를 학습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학습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무엇을 위한 교재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곧 교재가 어떤 교육적 접근을 취할 것인지와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교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1) 학습자에 대한 관점

우선 학습자에 대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는 누가 학습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교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래는 국립국어원의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6)의 발간사중의 일부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현지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고를 들여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범용 교재를 편찬하였습니다.

서문을 볼 때 이 교재가 표방하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포괄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습자에 대한 이러한 특성은 교재 내용의 구성, 등장인물, 상황설정 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상황설정의 경우 대학교, 뉴욕으로의 여행, 스키장,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긴 하였지만 이는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등장인물의 경우 ‘톰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자 백인이 여러 과에 걸쳐 등장함으로써 톰 스미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이라는 인상이 짙었는데, 이는 다문화적 개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등장인물의 선정이었다. 상대적으로 여자 등장인물의 경우는 이 교재의 학습자가 될 외국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부 한국인 여성들만 등장하는 기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국립국어원(2007)이 발행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교재는 다문화적 요청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 교재라는 목적아래 개발된 교재로 이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될 학습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또 이에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하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2007) 교재도 학습 대상을 명확히 여성결혼 이민자에 두고 있다. 다음은 이 교재의 발간사의 일부이다.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사 육아 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부록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와 생활정보를 실었습니다.

발간사와 함께 아래의 일러두기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이 교재가 학습자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교재를 구성하였을 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빨리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졌습니다...(중략)...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은 ‘가정 내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모델로 한’ 이 교재가, 이주 여성을 낱 그대로 ‘가정 내에서 살림만 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니다.

이와 비교하여 연세한국어 어학당(1992)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2000)등 대학부설 어학당이나 어학원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경우는 여성가족부나 국립국어원 발행 교재와 학습자 대상이나 학습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어 1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교포 성인을 위한 기초 단계의 책으로 생활 필수 회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썼으며,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중략)

한국어 4는...(중략)....중급단계의 책으로 한국인의 생활과 사고방식, 그리고 전통 문화를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사람과 한국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연세 한국어 어학당 교재 서문

이 한국어 교과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편찬한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의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다양한 지역 언어권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 서울대 언어교육원 교재 서문

이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이 교재가 대상으로 한 학습자는 대부분 학생이거나 한국학을 전

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재에 여러 상황들이 대학원이나 회사 상황을 설정하고 교재를 통해 이 상황을 경험하고 이의 다양한 언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 부설 어학원 교재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이들 대학 부설 어학당이나 어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에 발간되는 이주민 여성을 위한 교재와 함께 앞으로 이들 학습자들을 위한 적절한 한국어 교육 교재의 개발을 증대 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누가 학습자이냐의 문제가 기본적인 부분이었다면 둘째 이들 학습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교재분석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교재가 표방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래는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서문의 일부이다.

(서두생략)...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게 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털어드리고자 ... (중략)... 이 교재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사, 육아, 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으며... (후부 생략)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위 글속에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인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관점에서의 국어 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한국어 교육, 새로운 언어권에 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언어 교육의 접근에 가깝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부설 어학원 발행 한국어 교재나 국립국어원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재 내에는 이러한 학습자관(學習子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들 교재에서는 국어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에 대한 관점이 비교적 중립적이다. 반면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들은 상당히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자관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학습자는 해결해야 할 언어적 문제를 소지한 사람이며 부족한 사람이다. 학습자에 대한 이런 관점과 접근에서는 학습자의 자아감이 지지되거나 존중되기 어렵다. 언어교육을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 문제’로 보던 관점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은 세계 각지의 다중언어교육, 이중언어 교육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다문화 맥락에서 소수언어에 대한 관점이 ‘문제해결’적 차원에서 ‘인간 권리’의 관점을 거쳐 최근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박영순, 2007b)을 상기할 때,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어떤 관점을 채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단지 한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이나 아동심리 상담이 동등하게 중요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바로 이들 학습자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중요한 주장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국제결혼가정 국어 교육에 있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언어에 대한 관점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학습자인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은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이는 결국은 위에서 언급한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언어에 대한 관점은 언어가 학습자에게 있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교재의 체계적 측면과 효과성의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며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한 성인용 한국어 교재들 중에서 아래의 이대언어교육원(1999) ‘말문이 트이는 한국어’의 서문은 이 교재가 언어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매우 명백히 표방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은, 적어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관한 한 낯이 시도해 보지 못한 방법론을 이 교재에 담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나다라도 모르는 학습자들을 놓고 과제 중심(task-based)의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은 언뜻 무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비록 이상적인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일단 기본 문형과 단어를 기계적으로 숙달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이 교재는 그런 고정 관념과 틀을 깨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통합하고, 처음부터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도록 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준비되고 완성된 것이다.

이 서문에 따르면 이 교재는 전통적인 문자언어 교육의 방식을 탈피하고 언어의 기능적 의사소통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어가 아니라 기능적 의사소통적 필요 속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잘 듣고 말해야하고, 또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언어가 기능하는 방식이 이 네 가지 차원을 모두 필요로 하고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합된 방식으로 배우게 함은 물론 이러한 네 가지 언어의 기능이 필요한 과제 맥락 속에서 배우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물론 분석에 포함된 다른 교재들도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표방의 수준과 이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수준은 분명 달랐다.

또한 이 교재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데 개념적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교재들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을 교재의 내용 속에 상당 부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이지 언어와 문화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보기 어려웠다. 다음의 서문을 보면 교재 개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화습득과 언어 발달이 동시에,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이 교재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그 언어가 대표하는 문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언급되고 논의된 바 있으나 문화를 익힘으로써 언어가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동시에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문화를 알게 되도록 치밀한 구성을 한 학습교재는 영어 교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교재는 이벤트 성격을 띤 가시적인 문화 소개가 아니고 언어와 문화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기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 구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놓았다.

물론 이러한 언어에 대한 관점이 실제 교재 내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교재의 내용과 구성, 등장인물의 선정, 제시 상황과 이의 제시 방법 등등 교재의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 구석구석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교재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 학습자 특성 고려 측면

(1) 다문화 학습자의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재인가?

한국어 교육 교재에 모국어 변인의 고려는 다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제기한 현장의 요구였다.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중에 다문화 학습자의 모국어를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재 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었다. 연세 어학당 한국어(1992) 교재의 경우는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록 영어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본문과 문법 설명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제시하고 있었고,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2000), 부산외대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개발한 ‘쉽게 배우는 한국어’(2007) 교재의 경우도 본문과 문법 설명 일부 지시문과 설명글을 한국어와 함께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권을 고려한 교재는 찾아볼 수 없어 이들 교재가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어 교육 교재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국립국어원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교재의 경우는 다양한 나라의 모국어를 교재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교재 본문 내용의 학습과는 무관하게 교재의 맨 뒷부분에 따로 부록으로 간단한 회화 문장 40여개를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국 언어로 제시하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어 초급’(2006) 한국어 교재의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3>은 이 교재의 표지와 본문의 일부이다. 이 교재의 경우는 서문과 일러두기, 목차, 제목, 지시문 설명글 전부가 한국어 없이 베트남어 단독 제시된다. 한국어는 본문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제시된다. 따라서 교재 전체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베트남어에 비해 훨씬 더 적다. 아마도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 여성의 경우 이 교재를 받아보는 순간 자신들의 모국어 책에 한국어가 살짝 살짝 제시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는 초급 단계, 그리고 베트남어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단계 그리고 다른 언어권으로의 적용도 조속히 이루어지리라 기대되는 교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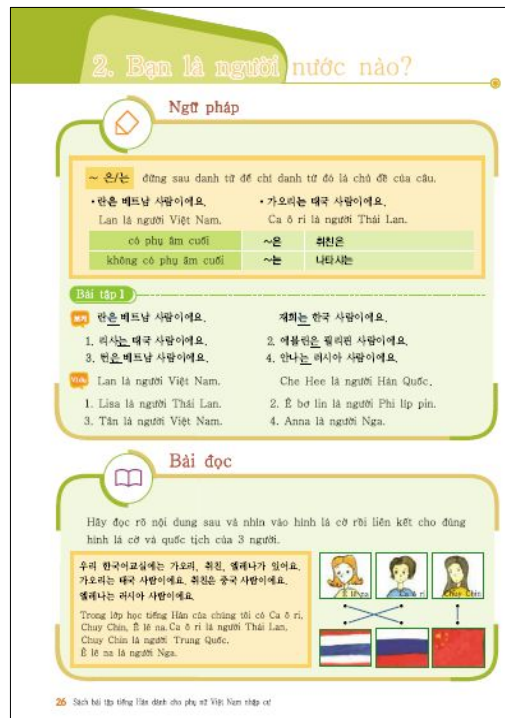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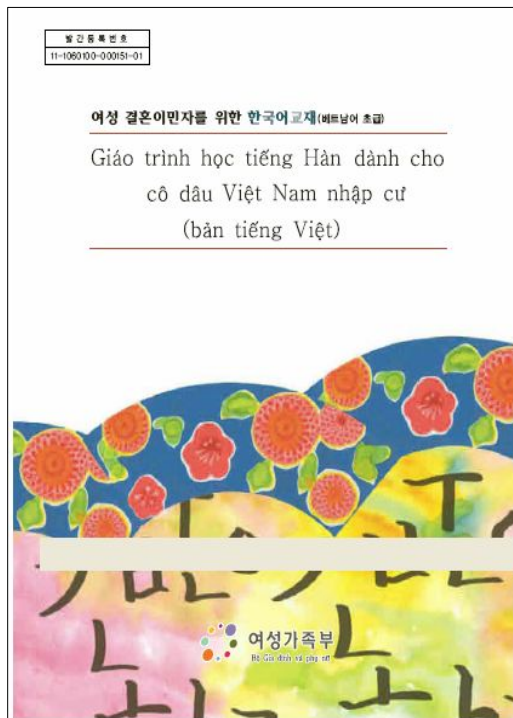


그림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어 초급(2006. 12)

한국어 교재에서 모국어 변인 고려는 결혼 이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넘어 국제결혼가정 내에서 이주민 어머니가 자녀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 준거는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의 국어 교재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2) 다문화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한 교재인가?

동일한 한국어능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학습자의 연령은 교재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있어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여러 유형의 사회생활을 위한 목적의 성인 대상 교재였으므로 특별히 학습자의 연령적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딱히 연령 변인은 아니지만 생활사를 기준으로, 결혼 이후의 시기에 적합한 내용, 등장인물, 상황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교재인가?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 교재의 경우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로 많게는 단계를 한국어 1-6 권, 혹은 한국어 1-4권으로 나누고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육 교재의 경우는 2005년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이 먼저 개발된 이후, 2007년

에 초급 전 단계를 위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이 개발되었고,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어 중급’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들 초급과 중급교재 간 난이도에서 이주민 여성 학습자들이 중급교재에 비해 초급 교재를 더 어렵다고 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구조주의와 부호중심의 분절적 접근으로 교재의 난이도를 정함으로써 나타난 폐해이다. 부호중심의 분절적 한국어 교육에 의하면 자모 학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가장 처음 기초 단계이다. 이는 대학 어학원 교재뿐 아니라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한글 자음 모음 받침 익히기에 의미 있는 맥락이나 상황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독본식의 반복적인 자모 읽기나 따라 쓰기가 대부분의 교재내용을 차지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의 경우 교재 전체가 의미 있는 언어적 상황이나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모의 반복 읽기 쓰기, 단어 쓰기, 동사 익히기 등을 학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자모 학습은 한국어 중급 책에서 상황과 함께 제시되는 문장에 비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모 그 자체는 실제로 어떠한 언어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모는 한국어학습을 위한 준비로서의 요소이고 규칙이기 때문이다. 또 문장별로는 간단한 그림 상황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문장과 문장 간에 전혀 의미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적인 문장과 상황들이다. 교재 한 권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언어학습의 난이도는 ‘단위 학습의 크기’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법, 의미 있는 맥락과 상황으로의 제시를 통해 그 획득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재 기획과 구성이 초래한 결과이다.

난이도와 관련된 더 세부적인 문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재들에서도 나타나는데, 통합교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적 기능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은 첫걸음 교재에는 걸맞지 않게 읽기와 특히 쓰기에 교재이 내용이 집중되어있어 국제결혼가정 여성들이 실제 인터뷰에서 이 이 교재를 통한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발행된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 재단이 발간한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7)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언어기능의 학습을 돕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재가 각기 개별교재로 개발되었다. 난이도와 관련해서 통합적 교재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언어기능에 따른 개별 교재가 적합한지의 문제는 한국어 학습의 시기와 기간, 즉 시간적 변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즉 언어기능별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나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나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4) 다문화 학습자의 한국어학습 목적에 부합하는가?

다문화 학습자의 한국어학습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학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울대 언어 교육원 ‘한국어’(2000) 교재는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구사능력’의 배양에 두고 있다. 이대 언어교육원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의 극대화’를 표방한다. 국립국어원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교재는 학습자가 한글과 한국어의 발음에 익숙해져서 이후 국어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교재이다. 물론 한국어 교육의 거시적 차원의 목적은 학습자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재 개발의 목적이 학습자의 한국어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한국어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한국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국제결혼가정의 학습자에게 일차적인 학습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과 한국어 교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적응과 의사소통의 목적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학습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학습자의 목적이 기존 교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제기하였고 이를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다문화 학습자의 자녀양육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재는 전무했다.

발음 제대로 안 나오면 아이가 싫어하고, 재미있게 읽어 줄 수 없으니까...미리 배워서 가르쳐 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 (몽골 출신)

공부랑해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인생 교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 출신)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당당해요. 노력하는데...내가 먼저 배우는 것...그래서 배우려고 하는데...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 조선족 출신)

이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원하는 것은 단지 한국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와 함께 같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국제결혼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과 내용 구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 국제결혼가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내용에 ‘아이와 함께 놀이터가기’, ‘도서관 가기’, ‘그림책 함께 읽기’, ‘요리하기’가 상황으로 설정되지 않는가? 학습자의 한국어 교

육의 목적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그 기본적인 사항부터 점검할 시점이며, 이러한 자녀 양육의 목적과 바램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도 필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5) 다문화 학습자의 생태적(주거지, 삶의 방식) 요구가 반영된 교재인가?

이 준거는 도시나 농촌의 다문화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다. 예를 들어 교재의 내용이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배경인 경우, 농촌지역의 학습자들에게는 언어 학습의 실제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이는 물론 도시 거주 학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결혼 이민자가 2006년 12월 현재 93,786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의 경우 총 혼인신고 건수의 11.9%가 국제결혼인데,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41%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본다면 결혼 이민자는 앞으로 급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06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 가족부에 보고된 바와 같이 농촌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의 비율이 반을 차지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재 중에서는 농어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는 다양한 거주지나 삶의 방식이 교재 내용 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국어 교재의 정교화가 필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거주지 특성은 또한 교재의 구성이나 학습활동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농어촌 거주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 이외에서 한국어 문해 환경을 접하기 어렵다면 교재 내에 다양한 학습자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TV나 신문 광고지등 다양한 문해 환경이 풍부한 지역의 학습자의 경우는 부가적인 자료 제공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실제 문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나 학습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의 체계적 측면

(1)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각 한국어 교재들은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각 교재가 지향하는 언어교육의 관점과 접근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 6>은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

한 한국어 초급'(2005)의 교수요목의 일부이다.

표 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2005) 교수요목

단원	제목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한글	한글 자음 모음 받침 익히기		
1과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이에요/예요	여러 가지 인사말
2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묻고 답하기	~은/는	세계 여러 나라 이름
3과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가족 관계 말하기	~의 이/그/저/어느(1)	가족의 명칭과 호칭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가 기능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각 단원에서 다루고자하는 문법과 어휘표현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한국어’(2000)의 교재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의 경우는 학습의 목표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단지 2005년 발행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선행학습용으로 기획된 것으로 한국어의 자모와 발음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자모 습득 후 문장을 통해 읽기,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등의 집필 방향을 밝히고 있을 뿐 단원별 구성이 목표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발간한 ‘한국어 말하기 1급(2007)’은 단원 제목과 함께 문법을 포함한 오늘의 표현과 활동으로 교재구성표가 제시되어 있다. 국립국어원과 세계화재단에서 발간한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6) 교재의 경우는 각 단원별 도입부분에 단원별 목표를 자기소개하기나 물건사기와 같은 과제, 문법, 어휘, 발음,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단원별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의 단원 구성을 보면, 학습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아래 아주 세부적으로 어휘 표현, 목표문법, 말하기, 읽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목표들이 설정 되어 있다. ‘쉽게 배우는 한국어’(2007)도 각 단원별로 도입 부분에 단원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표 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단원 구성

단원	주제	단원명	어휘 표현	목표문법	말하기	읽기
1	전화	박창식씨 집이지요?	전화관련 어휘 및 표현	-지요? -(의)ㄴ 거예요	전화해서 상대방 바꿔 달라고 하기	전자메일 일기
2	우체국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편지, 소포 관련 어휘 및 표현	-습니까/ㄴ 니까 - 습니다/ㄴ 니다 -(으)십시오	우체국에서 우편물 보내기	편지봉투 일고 쓰기
3	집안일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집안일 관련 어휘 및 표현	-아/어야겠 어요 -(으)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말하기/ 남편의 집안일 점수 매기기	그릇에 따른 설거지법
4	물건사기	좀 싸게 해주세요	장보기 관련 어휘 및 단위 표현	-게 -(으)ㄴ 때	물건 사고 팔기	광고지 읽기

(2) 문법 요소, 어휘, 문장 유형의 난이도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재인가?

대부분의 대학교 발간 한국어 교재의 경우 단계에 따라 문법적 요소나 어휘 문장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국어 교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어휘나 문법 요소, 문장 유형의 체계성은 각 교재가 단원별로 설정된 상황에 따른 변화가 큰 부분인지라 이를 비교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한 가지 국립국어원 발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교재의 경우는 1과에서부터 4과까지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를 그 제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5과, 6과, 7과의 경우는 어휘나 문장 내용의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3) 구어와 문어(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조화를 이루는가?

분석 대상 교재들을 구어와 문어가 조화를 이루는가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은 주로 쓰기와 읽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은 말하기와 읽기를 위주로 교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대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

어’(1999)와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2000) 교재의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교재이다. 국립국어원의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7)는 기존의 통합교재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여 초급 말하기 교재로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외대 한국어 문화교육원 ‘한국어 1급-말하기’(200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 언어 영역을 위주로 한 것이며, ‘쉽게 배우는 한국어 초급-듣기 말하기’(2007) 교재도 마찬가지로 구어중심의 교재로 개발된 것이다. 기존의 다중언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의 접근이 말하기, 읽기 영역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쓰기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인데, 현재 언어영역별 별개 교재로의 개발이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을 더 쉽게 하게 할지, 어렵게 할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구어와 문어를 한권의 교재 내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별개의 권으로 각기 따로 학습자로 하여금 구어 교재와 문어 교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의 네 영역이 모두 고루 경험되고 학습되어야 함도 분명한 사실이다.

구어와 문어의 배합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는 한국어 학습의 시점과 각 언어기능 영역별로 적절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래는 2년 이상 공식적으로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아온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다.

쓰는 거는 잘 못해요.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읽는 거는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 출신)

결국 의사소통이나 읽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발음과 쓰기 영역은 아직도 상당히 어렵다는 호소이다. 이 원인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교재로 교육을 받아서 인지, 아니면 쓰기의 실제적인 언어적 기능을 배제한 채 교재의 내용을 그저 따라 쓰거나 하는 등의 독본식(讀本式) 쓰기 교육의 접근 방법 때문이 아닌지는 재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4) 부호 중심적 접근과 총체적 언어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가?

연대 어학당 ‘한국어’(1994),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2005), 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2007) 교재를 보면 모두 본 단원 시작 전에 예비 편으로 ‘한글 자모 익히기’ 부분을 먼저 시작한다. 즉 한글 자모와 자모 결합원리, 자모 읽기 쓰기를 미리 연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산외국어대 한국어 교육센터 ‘쉽게 배우는 한국어’(2007)의 경우는 글자 받침의 발음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세계화 재단이 만든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6)의 경우는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포함되는 문장이나 어휘, 문법을 익

히는 순서로 제시된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교재는 철저히 부호 중심적 접근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는 반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는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사용된 문장과 어휘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읽기 내용의 경우 이메일 화면이나 편지 봉투, 세탁 법 주의사항, 요리법 등의 맥락으로 제시되어 총체적 언어접근의 읽기에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 쓰기 기능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구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대 언어교육원 ‘말문이 트이는 한국어’(1999)의 경우도 읽기나 쓰기 활동이 실제 ‘은행 거래 신청서 쓰기’, ‘장보기 물품 목록 쓰기’ 등 학습자에게 실제 쓰기가 사용되는 맥락을 제시하고 그 맥락 내에서 쓰기 활동을 하도록 잘 구성하였다.

(5) 평가 체제: 과정평가, 총괄평가, 자기 평가가 가능한 교재인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평가체제를 교재 내에 포함하고 있는 교재는 거의 없었다. 단 국립국어원과 한국세계화재단이 만든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6)의 경우는 매 과 마지막 부분에 ‘Check yourself’라는 항목이 있어 그 과의 학습 목표인 단원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평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6) 교재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인가? (의사 소통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의사소통성은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교재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성의 측면이 잘 고려되어 있었다. 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의 경우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의 선행 학습용으로 기획된 교재여서인지 의사소통성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교재 중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의 경우는 집 찾기, 소포 보내기, 물건사기, 요리하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 등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의사소통성이 매우 높은 교재이다. 하지만 이들 교재들의 의사소통성의 표방이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하면 이들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상황은 매우 제한되었다. 특히 놓여온 배경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의사소통성의 내용 측면이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4) 교육의 효과 증진 측면

(1)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① 한국어 교육의 내용(지문, 상황, 글의 형식, 말놀이) 자체가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풍부히 하고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가?

“이주여성의 경우 문화가 달라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사용기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보다는 정서적 감응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한국일보, 2007년 11월 21일 30면 기사 내용 중 발췌

외국어 학습은 일반 교육에 비해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정서나 동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교재가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을 풍부히 도우려면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에피소드, 한국의 속담이나 수수께끼 등의 소재, 같은 문법이나 내용의 어휘 시나 노래, 편지글, 계획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최대한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교재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많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대 한국어학당 ‘한국어’(1992),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2007) 교재의 경우는 전체가 대화문 위주였고, 이대 언어교육원 교재도 대화문이나 설명문 위주의 글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은 다른 교재에 비하면 다양한 읽기 지문을 포함하고 있다. 일기문, 안내도, TV 프로그램 편성표, 그리고 명절 단원에서는 설날 노래도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에 부합했다. 이후 개발되는 교재들에서는 산문과 운문의 조화, 또 재미있는 수수께끼 말놀이 등 학습자의 긍정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형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삽화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적절한가?

교재의 시각적인 측면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난이도를 낮게 지각하는데 매우 큰 요인이므로 학습의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한국어 어렵는데...그런데도 많으면 좋겠어요. 글씨도 너무 작아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 조선족 출신)

연대 한국어 학당 ‘한국어’(1992) 교재는 삽화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서울대 교재의 경우는 아주 미미하였다. 외대 한국어 문화원 ‘한국어’(2007)교재는 그것보다는 삽화의 비율이 높았다. 이대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1999)의 경우는 사진과 삽화를 결합하여 교재를 구성하였고 그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교재 서문에 시각적 디자인에 매우 신경

을 썼음을 밝히면서 그림과 사진 하나하나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개발된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의 경우도 단순한 일러스트에서 벗어나 실제 사진을 교재 내용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아이콘이나 활동 마다 색이나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여 학습활동의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후자의 경우는 색감이나 인물표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삽화나 그림이 어휘나 문장의 의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측면에서의 교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삽화가 어휘나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거나, 서로 일치감이 없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매개로 작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삽화나 그림이 너무 작게 제시되어 그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교재들도 많았다. 글자의 크기도 다문화 학습자들이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폰트들이 많았다. 이대 언어교육원 교재의 경우 교재에 사용된 글자의 크기가 상당히 작았는데 향후 교재 개발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는가?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를 제외한 대학 어학원 한국어 교재들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에는 시청각 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쉽게 배우는 한국어’(2007),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 재단의 ‘초급 한국어 말하기’(2007) 교재에는 CD가 첨부되어 있어 실제 듣고 말하기의 기능을 체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다. 인쇄매체 교재 외에 한국교육 방송의 여성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이나 한국디지털 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율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의 문제는 계속 남는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초기부터 정확하게 듣고 말하는 연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쇄매체 교재의 다양한 매체로의 개발은 향후 한국어 교재의 개발 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효율적인 시청각 자료의 이용과 관련된 교재내용의 철저한 사전 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문화에 대한 이해

① 한국 문화의 이해를 풍부히 하는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의 경우 교재 내에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나 구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모를 인식과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도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을 내용으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의 경우에는 단원의 내용으로 명절, 요리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교재 내에서의 문화경험은 단편적이고 여러 주제를 기능적으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간접경험하기에 불충분한 요소가 많다. ‘초급한국어 말하기’(2007)의 경우는 매 단원 별로 과제, 문법, 어휘, 발음 외에 문화라는 코너를 따로 구성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단원의 주제에 맞게 나이의 의미, 한국의 전통 주거 패턴, 풍수지리, 가족형태 등등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대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2000)의 경우는 교재 본문내용 뿐 아니라 ‘쉽터’라는 코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 토정비결 등을 제시하여 언어와 문화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요구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요구이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추후 교재 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교재가 한국 문화를 넘어 다문화적 관점의 개방성을 취하고 있는가?

출신 국적별 교재의 개발은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적 관점의 개방성을 취하고 있느냐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대 어학원 교재의 경우는 등장인물이나 학습 내용의 소재를 다양한 나라의 정보를 토대로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등장인물의 경우는 제임스, 캐빈, 셸리, 오자와 준 등 미국인이나 일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많았다. 이는 다른 대학 어학원 교재들이나 ‘쉽게 배우는 한국어’(2007)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세계화 재단의 ‘초급한국어 말하기’(2006)의 경우도 리아, 존슨, 톰, 스미스 등 등장인물이 영미,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또 교재 내에 해당 모국어의 도입도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언어권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의 경우 부록에 11개국 언어별 번역 코너를 마련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다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고자 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어 초급’(2006)은 서문에서부터 목차 본 교재 내용 전반에 걸쳐 베트남어를 전방에 배치한 다문화 학습자 중심의 교재이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의 경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다문화적 관점의 개방성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8>은 이 교재의 판권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표 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7) 교재 등장인물 설정

<p style="text-align: center;">< 교재 등장 주요인물 설정 ></p>	
1. 자넷:	필리핀 출신, 30대 초반 여성 두 아이(수미, 수혁)의 어머니. 작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라미’와 한국어 교실에 함께 다니고 있음
2. 산다라:	인도 출신 40대 여성, 자넷과 동네 친구
3. 라미:	필리핀 출신의 30대 여성, 자넷과 사는 곳은 다르나 같은 한국어 교실에 다님.
4. 미영:	자넷과 같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한국 주부
5. 투이:	베트남 출신 30대 여성. 지방 소도시 거주

이는 다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개발의 좋은 모델이라고 보여 진다. 다양한 언어권으로의 교재개발이 개발의 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 어렵다 하더라도 교재내의 등장인물 설정이나 배경 설정은 개발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며, 개발자들의 다문화적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는 향후 교재 개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다문화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자존감을 키워나가려면 모든 언어와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되고 고려되는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국어의 문화를 존중 받을 때만이 상대 문화의 언어와 소중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습자의 지적 욕구 충족

이 부분은 교재 분석이 아니라 다문화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의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 짧게 논의해 보려고 한다. 단지 한국어 그 교육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 전통과 관습, 교육과 자연환경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확인하기를 원한다. 교육과정이나 교재가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이 준거는 결국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되돌아간다.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 개인으로 하여금 능숙하게 의사소통하게 하고, 능숙하게 읽고 쓰게 하는 것인가?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에 요구하는 공통된 목소리는 자녀교육에

있었다. 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삶을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교재 내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교재의 내용이나 혹은 부교재로 제공되는 교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교재 속에 등장하는 다문화 출신의 인물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있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충분히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문화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모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평범하고 캐릭터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동기를 유지시키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의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효과적인 교재는 그 교재를 통해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는지, 학습자 스스로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고 스스로도 극복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나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적 중재를 할 수 있을지의 단서를 제시하는 것, 나아가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교재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교재 저작자들이 미리 고려하기만 한다면 교육과정과 교재 내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요건들로 보인다.

3.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는 국어교재는 거의 전무하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가정이나 이주 자녀를 위한 센터, 무료 공부방, 사회복지 단체에서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국어를 학습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일반 가정의 아동이 사용하는 교재와 동일하다. 즉 교재 자체로는 국제결혼가정의 특성이 지니는 교육적 상황이나 부모 변인 등 학습자의 개별적 변인이 고려되지 않은 교재이며,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이들 가정자녀의 국어 교육의 체계와 교재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일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성인을 위한 교재의 개발 원리와 같은 맥락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아동용 이므로 연령과 관련된 변인이 성인의 교재와 차별화 되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 아동용 교재 자체를 분석하는 대신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다문화 한글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교재를 포함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현재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와 제안은 III부 IV부에서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III.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심층면담 분석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면담목적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한글)학습지원은 취학 후 학업보충, 방과 후 관리, 어머니 교육동안 보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더구나 취학 전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연구 또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그들 자녀의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 한국어학습의 문제와 차후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제안을 얻고자 했다. 더불어 실제 한국에서의 자녀교육문제에 직면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을 통해 자녀교육에서의 문제와 이들의 욕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한국어교사들과의 면담은 이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더불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라 할지라도 낯선 연구자가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로 어머니들이 교육받는 장소를 이용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수행하였다.

2) 면담대상

본 연구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과 장소에서 심층면담을 하고자 했으나, 연구를 위한 지리적 여건과 기관에서의 면담허용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된 지역과 기관에서만 면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층면담은 서울, 인천, 동두천, 대구 지역에서 교사 21명(개별 13명, 집단 8명)과 외국인 어머니 14명(중국(조선족 포함) 7명, 일본 3명, 몽골 2명,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남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면담 대상자의 개별정보는 <표 9>, <표 10>, 그리고 <표 11>에 제시되었다. 면담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이름은 기입하지 않았다.

(1)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글학습지 방문교사

웅진씽크빅 대구지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를 통해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를 위한 바우처 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어머니는 방문학습 비용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학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이 사업이 본격화 된지 2개월 정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방문학습지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만나고 있었으며, 지역 복지관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일반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개발된 ‘한글깨치기’, ‘웅진국어’ 등이었다. 면담이 이루어진 교사들은 주로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취학아동에게 ‘한글깨치기’와 같은 한글학습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고학년이 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두 곳에서 한국어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은 ‘푸른시민연대’라는 NGO를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고, 인천지역은 인천시 남구 시립여성복지관 내 설치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두 곳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사들은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했거나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했고, 실력과 경력 면에서 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이외에도 외국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모국어로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한국어 교재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들과 대학의 어학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어교사들은 한국어교수뿐만이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생활사에 관한 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어,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적응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표 9. 개별면담 참여 한국어교사 인적사항

연번	이름	성별	연령	전공	교사경력	근무지	지역
1	박○○	여	38세	아동보육	방문교사10년/ 국제결혼가정 2개월	웅진씽크빅 복지관전담교사	대구
2	이○○	여	40세	아동보육	방문교사15년/ 국제결혼가정 2개월	웅진씽크빅 교사	대구
3	배○○	여	31세	유아교육	방문교사15년/ 국제결혼가정 2개월	웅진씽크빅 복지관전담교사	대구
4	정○○	여	42세	불어불문	공부방교사 18년/ 방문교사1년/ 국제결혼가정 2개월	웅진씽크빅 교사	대구
5	양○○	여	31세	산업디자인	방문교사5년/ 국제결혼가정 2개월	웅진씽크빅 복지관전담교사	대구
6	이○○	여	41세	-	-	웅진씽크빅 지국장 다문화사업주도	대구
7	김○○	여	36세	한국	교사경력 15년	공부방운영	동두천
8	이○○	남	27세	-	교사경력 2년	푸른 시민 연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서울
9	이○○	여	38세	중국어/터 키어	국제결혼가정 2년 5개월	푸른 시민 연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서울
10	박○○	여	40세	국어	국어학원강사/ 국제결혼가정 8개월	푸른 시민 연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서울
11	이○○	여	41세	디자인	영어학원강사/ 국제결혼가정 8개월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인천
12	박○○	남	45세	중국어	중국어학원강사/ 국제결혼가정 1년 6개월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인천
13	심○○	남	51세	영어/ 한국학	교사경력 20년/ 국제결혼가정 3년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인천

(3) 국제결혼가정 아동양육 서비스 교사

인천광역시 남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아동양육서비스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방문교사들과는 집단 간담회 형식으로 면담을 하였다. 이들을 만난 것은 일정기간동안의 아동양육서비스 도우미 사업을 끝내고 친목도모를 위해 모이는 때였다. 형식적인 면담보다는 친목 모임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가 느끼는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와 필요 내용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방문학습지 교사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국제결혼가정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정생활문제와 자녀학습지도 등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표 10. 집단면담 참여 교사(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인적사항

연번	이름	성별	연령	전공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경력	이전 경력	근무지
1	박○○	여	43세	사회복지학 공부 중	9개월	- 국립국어원 이주민대상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이수 - 대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 한국어교사로 활동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	이○○	여	46세	유아교육	9개월	- 유치원 교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3	배○○	여	43세	국어교육	9개월	- 입시학원 국어강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4	김○○	여	55세	가정학	9개월	-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 - 상담 자원봉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5	조○○	여	46세	-	9개월	- 상담 자원봉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6	최○○	여	42세	상업교육	9개월	- 어린이집 교사 - 공부방 운영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7	김○○	여	40세	-	9개월	- 보육교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8	이○○	여	43세	교육학 공부 중	9개월	- 상담 자원봉사	인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4) 지역사회 내 개인교사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공식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만나 학습지원을 하는 교사와도 면담을 하였다. 이는 동두천 지역 내에서 개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였는데, 이 지역의 특성 상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학습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장소에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자녀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들의 사정에 대해 위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교사는 별도의 한국어교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와 진도에 맞추어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학습지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다.

(5) 국제결혼이주여성

면담에 참여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은 대구지역의 경우 자신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보다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으며, 서울과 인천지역은 어머니자신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있었다. 동두천 지역의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모든 어머니들은 각자가 관련된 기관에서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 어머니들은 취학 전 자녀를 두고 양육하고 있었고, 매우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어머니들 중 2명은 남편과 함께 면담에 참여했는데, 면담에 참여한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매우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기 자신과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어머니들과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빨리, 그리고 먼저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긍정적인 욕구들을 토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해 이들에게 관찰되었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통점은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11. 면담참여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인적사항

연번	이름	성별	연령	출신국	학력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자녀	비고	지역
1	김○○	여	30세	필리핀	대졸	4년	중하	1남1녀 (5, 3세)	남편 면접 참여	인천
2	류○○	여	34세	베트남	대학원졸	5년	중상	1남1녀 (2, 4세)	개별 면접	동두천
3	최○○	여	35세	중국 (조선족)	중졸	6년	상	1남 (4세)	집단 면접	대구
4	노○○	여	32세	중국 (조선족)	대학중퇴	8년	상	2남 (5, 7세)	개별 면접	인천
5	임○○	여	38세	중국	고졸	8년	중	2남매 (4, 6세)	집단 면접	대구
6	왕○○	여	34세	중국	중졸	7년	중	1녀 (6세)	집단 면접	대구
7	이○○	여	37세	중국	중졸	6년	중	1녀 (6세)	남편 면접 참여	대구
8	박○○	여	38세	중국	-	7년	중	1녀 (7세)	집단 면접	동두천
9	박○○	여	32세	중국	고졸	4년 3개월	중	1남1녀 (18개월, 4세)	개별 면접	인천
10	스즈키 사○○	여	43세	일본	전문대졸	17년	상	5남매 (5세, 초등 2, 4, 5 학년, 중등 3 학년)	집단 면접	대구
11	데구찌 교○○	여	38세	일본	대졸	10년	중상	1남1녀 (7, 9세)	집단 면접	동두천
12	미○○	여	40세	일본	고졸	7년	중	1남 (5세)	개별 면접	서울
13	서○○	여	36세	몽골	대졸	7년	상	1남1녀 (2, 6세)	개별 면접	서울
14	암○○	여	31세	몽골	대졸	7년	중상	1녀 (6세)	개별 면접	서울

3) 면담방법

(1) 반구조화된 질문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를 면담하기 위해서 먼저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은 질문지에 작성된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담대상자들의 자유로운 대답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2) 개별면담과 집단면담

면담은 되도록 개별 만남을 통해 일대일 상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아동양육서비스 도우미 역할을 맡는 교사들 외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과는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그동안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어머니 중 일부는 일대일 상황에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보다 친한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상황의 시간적 공간적 여건에 맞추어 집단을 형성하여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어머니들에게는 준비된 질문 내용에 대해 돌아가며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어머니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 집단면담의 경우 개별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들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개별면담의 경우에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어머니 자신의 어려움 경험, 걱정, 그리고 바램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기에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었다.

개별면담의 경우 50여분 정도의 면담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집단면담의 경우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후에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교사와 어머니의 면담을 수락한 기관에는 아동교육과 관련된 도서를 증정하였다.

(3) 집단 간담회 형식의 면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아동양육지원 도우미교사들과의 면담은 집단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과 면담을 한 시간과 장소의 성격으로 인해 준비된 질문들을 형식적으로 던지고 답을 구하는 방법보다는 교사 개개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국제

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며, 한글교육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4) 면담내용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실질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면담에서 주고받을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정리하였다. 각 면담자가 면담 시 지참한 면담질문지를 교사용과 부모용으로 나누어 작성했으며 그 예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다음은 교사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1) 교사용

- 대상자 기본정보
- 담당 한글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
- 사용하는 교재의 특성과 문제점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한글교육과 관련된 어려움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글교육관련 어려움
-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해 필요한 한글교육의 내용과 형태
- 국제결혼가정 한글교사의 자질과 교사교육
- 국제결혼가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
-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2) 부모용

- 대상자 기본정보
- 어머니 본인의 한국어 교육 현황
- 자녀가 받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황
- 한글교육과 관련된 어려움
- 자녀의 한글교육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역할
- 자녀의 한글교육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의견
- 어머니가 바라는 한글교사의 자질
-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5) 면담자료의 분석

국제결혼가정 교육지원을 하는 교사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과의 면담 내용은 일차적으로 면담기록지에 요약 기록하였다. 그러나 면담과정에서 자연스런 대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기록하는 일에 치중하기 보다는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녹음이 여의치 못한 경우 그 자리에서 손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비디오 녹화를 허락한 부모와 교사의 경우 비디오로 면담과정을 녹화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면담은 음성녹음기를 이용하고 대화의 내용만을 녹음하였다.

50여분의 면담 동안의 모든 내용을 전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우선 작업으로 했지만 대화 중 모든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 중 한국어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언급된 부분들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다음의 연구결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사와 취학 전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녀와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과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1) 어머니와 교사가 바라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전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방안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기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장애’나 ‘지체’가 있는, 그래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들이 적합한 교육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통해 세계화 시대, 다문화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교사 모두 이들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통해 세계화 시대, 다문화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려 모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님에, 나중에 아이가 크면 쥘 보는 시야가 넓어질 거 같아요. 저 나라도 내 나라고 이 나라도 내 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클 거 같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어차피 뭐. 지금 국경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경이 있지만 그래도 애네 같이 내 나라
밖치고다. 내 나라가치고다 싸울 때는 이제 지나지 않겠습니까?... (중략)... 양쪽의
문화를 보고 크는 아이니까. 잘 키우면 양쪽의 나라에 그 뭐랄까 나라의 보탬이 된다고
할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홈스테이가고, 중국에
홈스테이 가고, 뭐 호주에 홈스테이가고 하는데 집안에서 두 가지 나라를 그 보고 경
험할 수 있는 예. 예 살 수 있으니까 잘 키우면 인재가 되죠. 아이들에게 이딴에 너
희들은 세계의 다리가 될 거다 얘기해줘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경우, 면담동안 이들 자녀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
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과 이와 관련되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등 면담
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자녀의 한글학습 특성 비교

(1) 공통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은 흔히 이들이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는 무언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낸 바로는 기
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요. 아이들은 이미 그 나이 대에 학교에서 한국아이들하고 충분히 어울리고 의
사소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선 그냥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거든요. (어린아이 경우?) 어쨌든, 요즘은 뭐. 3,4세 정도 되면 어린이집 가니
까 얼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들과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이. 거기도 보면 5
세 아동이, 6세 아동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충분히 얘기하고 잘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자기 형제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네, 아이들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아요. 학습적 자극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건드려주면 학 뺏아들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책을 한번 읽어주었는데, 캠프에 가서, 워낙 책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몰입하는지 몰라요. 잘할 거 같아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 교사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은 이들의 한글 자모 학습을 위한 지각적, 인지적 능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글 교수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처음 한글을 깨치는 거나 그 아이들이 처음 한글을 깨치는 거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도움을 못 준다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교수법에 별 차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상당이나, 그다음에 그 아이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차별성을 뒤야 되겠죠. 그 아이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다르게 하지 않아도 아이는 받아들여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나타내는 차이역시 일반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개인차로 볼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이제 늦고 빠르고 그 차이점이죠. 뭐 7세라도 5세의 인지력을 가졌으면 우리가 5세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어차피 7세 났잖은 인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또한 이러한 개인차가 아동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어머니의 학력, 성격특성, 가정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었다.

“어머님들이 되게 극성이고 이런 아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표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래보다 많이 뭔가 모르게 조금...”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2) 차이점

한국어교사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아동 개인의 능력만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질적으로 다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다른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 때문이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어머니의 국내 체류기간 또한 짧기 때문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크게 주어질 것이라 보았다.

“다르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다르지 않아도...말약에 닿아야 된다면, 아까 말쑥드렸듯이 처음 한글 깨치기를 하는 친구들. 36개월 이전의 아이들. 분명히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가 오신지 얼마 안됐을 거예요. 그렇지?”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이와 관련지어, 좀 더 나이든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보이는 어려움도 초기 경험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첫째,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한국어의 구어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역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머니들은 한국어 한자잖아요. 원어원인데, 원어원으로부터 그 언어에 노출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들어봐야 흉내를 내는데.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심지어는 베트남어조차도 가르쳐 줄라니까, 집에서는 아, 여기 한국어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가 불편하다 한자식에 가고 싶을 때 베트남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아이가 한말 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고.”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S교사

“(우리아이는) 꼬끼리 뭐 이런 거 동물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할 수 있는데... (중략)...책 안에서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 아이들 잘 못 읽어주잖아요. 잘 사싱. 제가 발음도 잘 안되고요. 한국 사람처럼. 아이들도 발음, 있잖아 말 할 수 있는데 발음이 잘 안되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옛날에 둘째 어진이집 선생님이 쌍기역이나 쌍시옷이나 그 발음이 잘 안됐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애들도 안 되는 거죠...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아이들 발음이나 받침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 같아. 왜냐하면 초에 입학해서는 해경 못하니까 오로지 학교선생님하고 애들 사이에 애들이 알아서 그걸 해경하고 가야되는 같이 있기 때문에...”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두 번째로, 어머니들로부터 주어지는 구어적 자극의 부족은 발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휘력부족의 부족과도 관련되었다.

“표현력 떨어져요. 비가 주룩주룩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런 게 엄마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떨어져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국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표현력이 없어요. 애들이”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유치원가서 문제가 벌써 생기거든요. 어휘력도 낮고, 엄마랑 집에서 대화할 때도 수준이 낮은 거죠. 엄마의 한국어 구사력이 낮으니까. 엄마도 얼마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아이도 말을 논리적으로 문장을 끝까지 완성시켜서 점점 더 어려운 내용이나 추상적인 얘기를 해야 할 시기인데 못하고 엄마들도 못 따라 오고 아이도 그 수준에 맞춰있는 거예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교사

셋째, 어휘력 부족은 곧 읽기이해력 부족과 연관되었다.

“다문화 가정 애들 같은 경우, 저는 읽고 쓰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략)... 어차피 어눌해서 생활을 하니까 지금 이 아이 말고 다른 평범한 가정의 그 아이도 보면 제 힘원하고 되게 친하고 매일 같이 오고, 얘기 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읽고 쓰는 게 잘 안되죠. 지금 가르치는 아이도 그렇죠. 지금 가르치는 아이도 뭐 학 습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대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중략)... 국 어도 이해하는 게 조금 그렇고요. 국어가 이해하는 게 떨어지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밑에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넷째, 구어적 경험의 부족이 어휘력과 읽기 이해능력의 부족과 관련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줄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커나가면서 왜, 어머님이 해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인성적인 부분이나 사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중략)... 어머님들이 어, 우리나라의 아직 문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의 그 단

계에 맞는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비물을 해도 똑같은 준비물 하면 이 어머니들은 왜 잘못 챙겨줘서 아이들이 되게 당황스럽고,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경쟁격이나 갭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 어머니들이 사실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과 사실 친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들은 거의 같은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문화가 돼 있어요. (서로)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그러기 때문에...(중략)...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래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죠.”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차이는 학습내용과 방법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더딘 학습 진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동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음..그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겁나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조금, 이제 일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계를 조금 낮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계만 낮추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교재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세나 7세 같은 경우에는 초등 1학년에 들어가서 충분히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충분히 하고 1학년에 가는 아이들하고, 하지 않고 가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고 간 아이들이 훨씬 더 쉬워하거든요. 그런 단계들이 없이 바로 들어간다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충분히 쉼 밑에 과정을 하고, 과정을 푼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학년에 뭐 같은, 똑같은 뭐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을 해보고, 애가 이 진도를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쉼 더 낮은 단계를 해요. 하고 나서 어 이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단계를 바꾸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자녀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기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격차를 보이는 아동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학습동안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내용을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복습부분을 조금 늘렸으면 그니까 어떤 친구는 이걸 한번 봤는데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복습하는 부분을 조금 강요 조금 더 늘려줬

으면.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 친구들은 죽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번 친구들은 어진친구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습부분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3)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한글 가정교육의 어려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려움은 어머니로부터 주
 어지는 초기 경험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어머니 역할은 일반가정에서뿐만이 아니
 라 국제결혼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
 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양육과 한국
 어 교육에 관련된 어려움을 파악하고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교사들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어능력
 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복지관 말고 원래 수업했던 기존친구가 있는데, 어머님이 그 전에 한글수업을 할 때
 는 5세라서 등한시 하신 경우가 있어요. 숙제를 전혀 안 해주셨거든요. 한글을 아시
 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생님 역량에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6세밖에
 되니까 마음이.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어머님이 집에서
 숙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재를 한 번 더 봤다는 거고 아이한테 줘 시
 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글 읽는 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더니
 그 친구가 지금 글을 읽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저한테 뭐든걸 맡기시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활용도 안 되고 끝이 나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책을
 한 번 더 해주시니까 신경을 써주시니까 급격하게 느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때 어머
 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한 교사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자녀의 언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례
 를 들었다.

“저희가 수업하는 거기도 언마는 분명히 한국본인데 아빠가 아깽 계통인데, 내가 수
 업하고 난 뒤에 이 친구 언마, 아깽말로 오는 수업에 대해서 어땠니 저땠니 뭐 이렇
 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싶은가봐 이 친구가 나한테, 한국말도 잘해요
 정말,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 글씨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관심은 가지는

데, 개가 아까 아깽어는 다 뺏다고 했잖아요. 언마가 저한테 자깽을 막 하더라고
요...(중략)...이게 언마한테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훈라인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은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아이가 그 연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언마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언마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4
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애들은 이미 한국말은 다 깨치고 이해를 하는 그 단계인데,
언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 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하고 같이 할 수는 없거
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 적절한 언어적 초기경험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이
유에 대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먼저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읽기, 쓰기, 이해하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어머니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소리 내서 읽기 등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언마하고 읽고, 언마하고 말하는 거, 읽는 거는 내가 솔직히 쏘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작용을 하나. 애한테 작용을 하거든요. 언마가 정확하
게 읽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에 연결이 되고... 이게 언마
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거 같으면 이게 필요 없지만, 애들을 위한 읽고 말하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언마가 글씨 못써도 상관없잖아요? 언마가 유창하
게 논리적으로 말 못해도 상관없는데. 언마가 일단 읽고 제대로 정확하게 읽고 그 다
음에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도 자신의 한국어, 특히 한글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자
녀양육을 할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

“공부 시킬 때도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 종종 나가는데 언마들이 읽어보고 가르치니

까 그런데 우리는 엄마가 못하니까 안 나가고 책 읽어봐도 그게 그런 뜻인지 잘 모르고 읽어볼 때도 많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저쪽에 전달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전달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엄마가 이해해서 전달하면 애들도 받아들이지만 엄마가 그런가봐. 그냥 그냥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도 그 정도 밖에 안 받아들이대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성명을 못해서, 선생님만큼 못 따나가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글자 보면서 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게 애기가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고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따라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기가 막 짜증나고. 막 어쩔 때는 책 하다가도 하기 싫고 막 그렇다니까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가지고 물어보면 딱딱 나뉘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가면 엄마가 머릿속에서 한번 자기나라 말로 이해하다가 다시 한글로 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애들이 좀 재미가 없게 되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없는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은 받아쓰기에서의 같이 한글맞춤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중국출신 어머니1: “또 맞춤법, 엄마가 가르칠 수 없어요. 잘 가르칠 수가 없죠.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중국출신 어머니2: “처음부터 잘 배워야지.”

일본출신 어머니: “그런데 집에서도 엄마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국출신 어머니2: “이제 학교에서 1학년. 2학년은 받아쓰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도웁이 안 돼. 받침이 안 되가지고.”

중국출신 어머니1: “받아쓰기 하려면 볼러줘야 되니까.”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일본출신1, 중국출신2)의 대화

둘째,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어려움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에서의 학습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한국의 학교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한 것과도 연관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 자신이 느끼는 좌절은 물론 이들의 자녀 역시 어머니를 무시하고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한테 크나큰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숙제나 듣지 않던장을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가장 1차적인 문제이겠지요. 학부모임에서 가서 활동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엄마들 측면에서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많이 통해야죠? 선생님하고 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도 어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L-1 교사

“그 아이들이 숙제를 하려면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알던장에 써 가지고 가도 엄마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준비 못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산가지’아세요? 그거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스트로우으로 만든 건데 수세기 할 때 10개 묶음을 산가지라고 하는데, 아 그 게 살아있는 가지구나 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산가지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P교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엄마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뭣쫓법이나...이런 게 좋거든요. 아까 말한 초등학교 2학년 엄마는 아이한테 배워요. 글쓰기틀, 글쓰기를 따로 공부 안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역전돼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왔는데 뭐하다가 엄마 튕렸잖아하면 그래? 엄마 튕렸어하고 늘상 우리 엄마는 몰라...”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L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한글교육과정에 대한 지식부족과 기타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도 어머니가 학습준비를 시키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한테 다시 한 번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글을 조금은 알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 우리 애 글자 모르는데 왜 자꾸 카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 빨리 가나다라 글자 쓰고 딱 이거해야 하는데 왜 선생님 이거 컵이지 이렇게 하니가 그거서 엄마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엄마는 복지관에서 분명히 공책에 딱 쓰시면서 배우셨을 거잖아요. 본인은, 본인은 그렇게 해서 글자를 배웠는데 왜 내가 카드 가지고 오고 뭐 이거가지고 딱 이러니까 아 이거 쯤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쓰면서 빨리 배

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걸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자주 선생님이 매주 가서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게 엄마한테 자주 상담을 해서 왜 이번 주에는 왜 이걸 했냐하면요.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해야 될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앞서 소개한 사례의 교사는 자신이 하고 있는 방문학습 시에도 어머니들이 학습의 목표나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저희가 도입부분은 거의 선생님이 이루어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다 보면은 이 앞쪽에 저희가 해주는 부분은 개념부분이고 도입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뒤에는 어머니가 숙제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머니들한테 어머니들이 이 글을 읽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웃음)어려운데. 예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 아 어머 예 이런 부분이 사실 한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머니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적어봤자 이렇게 글을 읽는다고 하셔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셋째,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존댓말과 존칭을 써야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같은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님은) 베트남 하얏서 왔는데 그냥 말 못해요. 완전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신장 보고도 뺄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형님이라 부르는데 형님 부르면 몰라요. 이쁜 불려야 되요. 그 형님 이쁜 불려야 어? 왜? 뭐 그냥 행동으로 하지 말 못하니까.”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더 나아가, 이들은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문화나 한국 문화재에 관한 것을 설명해줌으로써 자녀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과 좌절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연구자와 필리핀 어머니와의 면담 중 한 부분이다.

연구자: 누군가가, Somebody가 와서 도와준다면, 뭐 도와 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김○○: 한국 문화

연구자: 어떤 거요? ○○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웠던 한국 문화 있어요?

김○○: 많이 있어요. 윗사람, 남편도 잘하지...필리핀에서는 여자만 최고, 여기는 남자만 최고. 그래서 남편 잘해야지. 필리핀은 달라도 문화. 그다음에 Celebration 추석, 설날.

연구자: 이제는 ○○가 충분히 알지 않아요?

김○○: 알아요. 근데 우리 딸은(에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연구자: 한국말로는 어려워요? 영어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김○○: 영어로는 설명할 수 있으나, *but not enough*. 도박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기 한국 문화 나 혼자 안돼요. 아마 우리 딸은 헛갈려 해요.

연구자: 그런, 만약에 ○○가 예진이한테 읽어주는 책에 그림책에 뒤에 뭐, 언니, 예진이한테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세유가 나쁜다면 도움이 될까요?

김○○: 아뇨.

연구자: 왜지요?

김○○: 난 읽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딸 계속 언니 어떻게 해 왜 그래 이렇게 많이 설명해달라고 해요. 우리 딸은 계속 *Question*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래서(그러면) 난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은 난 못 가르쳐요. *I can't teach*. 읽어서는(읽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설명은 조금 안돼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필리핀출신)과의 대화

다음 면담사례의 국제결혼가정 어머니 역시 자녀교육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노○○: 근데 저는 가끔씩 친정가도 친정엄마가 돈 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주는 거예요 가끔씩. 여기서 맨 날 가둬 있고 이렇게 사는 거 힘들니 가서 바깥에라고 엄마가 돈 주고 보내 주는 거예요 가서 한 달만 놀고 오라고. 거기 가면 완전히 애들이...(여기서는) 놀이동산에도 못 가봤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한 번 가면 10만원 씩 까지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중국가면 어디든 놀러 가고 다 가잖아요. 재들 그거 신나서... 여기서 한 번 놀아 본 적 없고...지난번에 여기에서도 경복궁 놀러갔어요

연구자 : 네. 여기에서요?

노○○: 네. 애 둘 데리고, 저도 한국에서 8년 살아봤는데, 경복궁 어디 있는지 못

가 났고, 민속촌 TV에서 보고 아 저렇게 생겼구나. 진짜 가서 보지도 못 했잖아 뭐 매일...그래서 가면 애들 문화체험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기약집 짓는 거 그런 게 재밌어서 그날 버스 두 대 갔는데 많은 사람들 갔는데 애가 거기서 너무 신나게 놀아서 미안해서 거기서 같이 가주는 한국 아줌마가 있어요. 미안해서 애기 못하고 거기서 체크인 다하고 온 거예요 오는데 버스 두 대 사람들 다 우리 기다리느라 얼마나 미안했는지...그런데 그 엄마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애 키우면서 한국 엄마잖아요

연구자: 그럼요, 한국 엄마죠.

노○○: 엄마들 가끔씩 뭉쳐가지고 같이 돈 모아서 경복궁하고 뭘 궁이 많데요 서울에. 거기서도 체험 시켜주고 민속촌도 놀러가고 엄마들 하고 어쭙하면서 같이 놀러 다니라고, 근데 이상하게 저희 동네는 전부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예요 빌라에서 사는데요, 저 나이 또래 없어요. 다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엄마고. 예,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가도 엄마들 다 직장 다니는 엄마, 가까이 친구도 사귄 수 없잖아요 저도 동학이 8살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다른 엄마는 어떻게 키우나...

연구자: 궁금하시구나.

노○○: 궁금하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중국사람 한국 사람이니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미투미, 멘투미라나?

연구자: 아, 멘토링? 예.

노○○: 여기서 맺어준 그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엄마는 나이 많아 애들 다 키웠었구요.

연구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좀 더 나아지겠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와의 대화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기타 양육지식의 부족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연령과 한국체류기간, 가족들의 지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교육상담을 위한 전화)통화해 보면 일본 엄마들이 조금, 조금 더 배우셨고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 조금 더, 교육에 좀 더 애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은 솔직히 나이가 너무 어려, 엄마들이. 뭐 20대. 정말 스무살 둘, 이르고 애는 다섯, 여섯 살. 엄마도 한글이 잘 안 되고, 아빠는 조금 나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교육 쪽으로 뭐 하면 ‘아빠한테 여쭙보세요.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동남아 쪽은,

평리핀 이쪽 언마들은 ‘나는 몰라요, 아빠한테.’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조차 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전화로도 하기가 쥬 그걸고, 선생님이 실제 수업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셔야 돼. ‘이전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한글도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하면 있기는 있대. 그런데 아빠한테 여쭙본대. 그래서 아빠한테 허락해서 아빠가 좋다고 하면 이제 OK해서 수업을 하대요. 아빠들도 대부분 쥬 보면, 그런 집 아빠들은 쥬... 나이 많으시고 일 잘 안 하시고... 여기 아빠(현재 방문학습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는 쥬 제가 한 집, 두 집을 아빠를 직접 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쥬 이해를 쥬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아빠더라고...”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머니가 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양자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한국어 교육이 언제부터 필요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다.

4) 취학 전 국어(한글) 교육의 필요성

언제부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어교사를 비롯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은 이구동성으로 취학 전부터의 교육을 주장했다. 취학 전 한국어 교육은 이후 학교 입학 후 문제가 되는 학교생활의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 및 학습부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마가 언어가 완벽하지 못하다보니까. 애들이 알겠장하나 가지고 앓도 바주지 못하니까. 쥬겨가는 게 뒤쳐지고, 유치원 때부터 그앓았던 게 오래전부터 그앓았던 게 초등학교까지... 유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온 애 하고 안 해온 애하고 차이가 영향이 많더라고. 초등학교 가서 하려면 힘드고. 일찍 이게 됐더라면 일찍부터 그런 게 3, 4세부터 그때부터 그앓다면 좋았을걸...” -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양육도우미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쥬.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그냥 읽고 떼는 게 아니라, 한글을 잘 떼서 국어의 어떤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되면 나중에 한글을 잘 떼면 국어의 이해력이나 이전 부분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이 밑에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들이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라면 그냥 사라, 뭐 이렇게
말 하니까 아이가 그 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
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아 때부터 도와주면...”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훨씬 한국어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으니까 다른 과목들도 잘 따라가겠쥬. 기본 필요
한 게, 가장 저희가 필요한 게 국어라목이잖아요. 국어에서 이해가 잘되면 다른 과목
들도 이해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학습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아들 한글 안 떼서 학교 보냈다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요즘하고 틀리잖아요. 한 5년도 차이 많아요. 지금 한글 모르고 학
교 가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1학년 가면 받아쓰기부터 한다는데 애는 쓸 줄 도 모르
는데 게다가 담임선생 잘 못 만나면 저도 불안해요 잘못 만나면 구박 받을까봐 겁나
도 외국 사람인데다가 그런 부작용도 있쥬.”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면, 그러면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막상 가면
그 애들이 알잖아요. 야야 어머니 엄마 어디 어디 나라사람이야 하고 애들이 물어보니
까 그러면 그때는 좋은데 막약에 누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거 같아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바람직한 자녀교육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에 좀 도움이 되는 거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유대관계도 조금 있는 것 같거
든요. (한글을 가르치는 데도 인성교육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문화를 이
해하는 데 일단 이 책이란 자체가 문화 이해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돼서
기본생활습관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책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또 다른 친구들하고
도 사실 대화를 먼저 하려면 그 유아 때 어머니들 댁에서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
고요. 그때 좀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댁에서라든지 말을 많이 해 준 친구는 정
확한 친구가 있고요. 그때 많이 어진, 많이 트이는 시기에 조금 이렇게 덜 신경을 쓴

친구들은 사실 뽕이 쏙 안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 이전 식으로 지도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생기니까...”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5) 한글교육의 바람직한 형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부터 적절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를 표하였다.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들의 경우, 이들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크게 미치고 있다. 따라서 취학 전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와 어머니의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학습과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한국어교사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의 형태를 교재, 교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어머니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교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일반가정의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과 다른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용과 학습원리 면에서는 차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방법을 구사하는 면에서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문자언어 학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말하기, 듣기를 기초로

먼저, 교재를 만들 때도 문자언어 학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말하기, 듣기를 기초로 한 개념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글자나 생활방식이 얼마나 다르기 때문에 연마가 이해 못하는 또 간혹 있을 거고, 그밖에 이런 사물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애가 모르고 글자만 자주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애들 마찬가지로 글씨만 알게 되는, 지나고 난 뒤에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 애들이 한자 잘 모르고 한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어린 개월 수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그 밖에 글자도 글자지만, 글자만 함께 주변에 있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교재가 있어야겠죠.”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한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매우 어린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풍부한 구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자언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 구어적 개념과 사물에 대한 개념들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각적으로 다양한 매체가 교재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

단순한 글자 인식을 넘어서 사물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을 위해서는 교재에 풍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발음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디오 북,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도 듣기테이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연동화 식으로 이 그림을 보고 동화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도 그걸 들으면서 상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읽기테이프, 듣기 테이프 같은 거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옛날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을 못해주니까 듣기테이프를 이용해서 구연동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구연동화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비디오테이프. 눈으로 봐야죠, 보고 듣고가 같이 되어 될 것 같아요. 이 엄마들한테 오디오로만 뭐 딱 우리나라 사잖아 옛날에 호랑이가 땃배를 피고, 아 뿔다 호랑이가 땃배를 피우고, 산골을 넘어서가 되겠지랑, 떠오르는 이미지에 없을 거니까. 동영상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그게 이제 On-line과 Off-line이 있겠는데요. Off-line에서 보면 책을 만들 때, 제일 첫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번역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마들의 자국말로. 베트남 엄마가 가르칠 때는 베트남말로 번역이 되어있고, 해석서도 베트남말로 번역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각종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오디오나 이런 쪽으로 개량이 돼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비디오테이프라든지, MP3 라든지, 하여튼 뭐 다양하게.”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거정지원센터 S 교사

교사들은 특히 멀티미디어 게임 형태의 부교재들이 어린 아동들의 흥미를 끌어 학습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가 일본인 가정에 갔을 때 그때 5살 여자아이였는데 일본인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언마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아이가 언마한테 한국말을 배운다는 생각을 접었고. 혼자서 한글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5살인데도 제가 2시간정도 있었는데 계속 해요. 그때 게임이 한글게임이에요. 한문이 뜨며 그 해당되는 단어를 누르고 맞으면 선물이 딱 뜨는 그런 것이었어요. 훈과는 주는 것 같은데 맞히기가 아니라 읽기잖아요. (그런 듣기도 그런 게임이 있다면 읽기처럼 훈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게임이냐..."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L 교사

그러나 이러한 교재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교사의 역할을 뛰어넘어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

"뭐 김지호가 하는 한글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한글을 가르치는 거는 옆에 그 언에 조금이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뭉뚱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가'야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는 일대일로 앉아서 애가 이걸 알게끔 자주 얘기를 이야기하 이 글자를 익히게끔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자주 들려주고, 놓아주고, 어떻게 꺼리를 제공하고 (하는 차이가 있지요). 동영상도 실제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동영상은 나한테 노래 열심히 불러주고 그래서 이거 글자 익히세요. 이것뿐이 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초빙 안하고 비디오로 1호부터 10호까지 해서 언마가 보여주는 집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선생님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애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글자 가를 배웠으면 어 선생님 그러면 가방의 가하고 똑같아요? 어 그런 가지의 가하고 똑같아요? 어 그런 똑같애. 뭐 손가락의 가하고 똑같아요? 어. 맞아 똑같애. 이렇게 해 줄 수 있지않 비디오는 가예요. 가지의 가예요. 끝인 거. 하나밖에 모르죠.

그러면 애는 가방의 가는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자기 나중에 스스로 이제 어 언마 저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애? 어 똑같애. 언마가 그 대답해줘야 하고, 문제는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비디오테이프가 있지만 비디오테이프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간다는 거죠."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현재 대한민국에는 TV나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수업이 유행하고 있다.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앞서 교사와 함께하지 않는 멀티미디어 교재들의 효과에 회의적이었던 교사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다.

“원격학습방법들이. 그런데 거의 실패를 보잖아. 아이들이 그 시간에 딱 있지 않아. 이 실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워낙 학습지를 오래 하다 보니 원격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방송으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 다 해 봤는데. 해보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런 교육장에 컴퓨터를 20장 깔아놔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책에서 그냥 하는 거 정말 어렵고 답답하지. 인터넷 좋아하지 게임 좋아하지 딱 이쪽으로, 예 하고 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을 짜주고 여기서 영어보게 했는데. 이게 실시간이 안 되잖아. 그리고 원격이라 해도 실시간, 애는 6시에 오고, 애는 5시에 오고, 애는 3시에 오고, 시간도 일당 안 맞춰지고요. 장소에 정해진다고 안 맞춰지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했는데 이 선이 전체적으로 이거 있죠. 이 선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 뭐로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장비도 많잖아. 그다음에 애들이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와서 처음에 한두 번은 온대. 그런데 그 다음날은 뭐 태권도 가야돼. 그리고 조금만 늦어버리면 다른 친구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걸게가 안되잖아. 우리 한상폰. 이제 딱 하잖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실시간 수업 안 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거 여기서 플레이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재와 수업방식에 대한 기대와 회의는 학습자의 연령과 교사 또는 부모의 지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물교육과의 연계

멀티미디어 교재에 관한 의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도 많은 수가 컴퓨터나 비디오 매체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원격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어린 영유아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실물교육과 연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교재 밖의 책을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오리를 몰라요. 병아리랑 오리랑 구분을 못해요. 애가 개월 수 어리면 얼마한테 책을 가지고 오래고 해요. 집에 있는 병아리 오리 책. 자기 집에 있는 책이고 자기가 봤던 책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구분하게끔 해주고 제가 만약에 그걸 못

해주면 엄마들 그걸 상담을 해주죠. 어머니 서전 가서서 오리고 병아리 있는 책 두 권을 사셔서 보여드리라고, 그리고 뭐가 다른지 뭐가 똑같은지 그리고 혹시나 시간되시면 뽀 되면 병아리 한 마리 키워 보라고하죠. 애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오리는 어디 가서 식물을 보여주라고”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 풍부한 어휘

이 밖에도 교재에서 다루는 어휘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보다 어휘의 양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아이들 교재 만들 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특징을 보면 발음보다는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평균수준의 다른 아이들과 딱 비교해봤을 때 확 떨어지는걸 보면, 보통 엄마들이 2살 4살 5살 그 사이에 한국 엄마들은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이 엄마들은 그렇지 못하니깐 충분히 읽어주지 못하니깐. 어휘력이 확 떨어진다. 속담이라든지... 자주 쓰지 않는 한국말들 잘 모른다. 그런 부분이 교재에 필요할 것 같아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 교사

“어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초등에 왔을 때 읽는 건 잘 읽어요. 읽는 건 잘 읽는데 그 어휘가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1학년 두 명을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사계절이랑 많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 뽀, 여쭙, 가을. 겨울 딱 아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 사계절이 무슨 말 이예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 외래어의 경우, 어머니들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을 부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외래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이들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단어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에 뭘 보니까 이 영어로 변형하는 단어가 많아서.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 같아요. 예. 모르는 단어가 많거든요. 애기 책, 그림책 사오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하나 사오라고 그 이름이 뭐다냐,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책을 사오라는데. 거 앞말 기억해도 알라는 거냐, (스케치북?)예, 쪽지에다 써 왔는데 근데 그 쪽지를 안 갖고 가가지고.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였는데. 책이라 이해하니까 그걸 꺼내주네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저는 공책. 공책은 책이잖아요. 책 이러니까 책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공책, 공책이 무슨 뜻이냐 해서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공책이가 뭐냐 했더니 공책이 공책이지. 옆집에 아줌마한테 가서 공책이 뭐냐 했더니 노트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그때 노트라고. 공책, 책이라고 하니까 책이라 생각했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 생활에 맞는 거지만 그래도 그 언마가 해본 생활에 나오는 단어들도 한두 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 (중략)... 특히나 이제 일본 언마들이 맥도날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매크도, 마크도 나르드. 그걸 우리나라에 쓰면 마크도나르드 이렇게 써야죠. 우리는 맥도날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화할 때 이제 뭐 분명히 맥도날드, 초코렛,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략)... 우리는 지금 세탁기, 냉장고, 이런 단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 세탁기, 냉장고를 안 써본 언마가. 뭐 우리나라 와서 쓰긴 쓰겠지만 이 말이 필요하니까. 조금 욕심내자면, 그 언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에 맞는 단어들을 조금 넣어주면 그래서 단어가 조금 추가된다면 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2) 교사

●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기초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러 들어가는 선생님은 한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자기가 갖는 편견을 어떻게 깨뜨려야 할 것인지를 먼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내 나쁜대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부딪치고 깨치고. 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편견!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영국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가 나오는데 그 집안에서는 아이들라 다 같이 한국어와 영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여자가 결혼해서 한국 가정에서는 베트남어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인데 영어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베트남어는 안 되고 .. 무의식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교사

“우선은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 문화가 최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편견 이런 것
 좀 없애 수 있게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정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국어 교사들 중에도, 한국은 지상최고의 나라다 뭐 최고의 언어 이렇게... 그런 다문
 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다문화를 경험해 보았더라
 고 하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또 외국 언어를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거정지원센터 S 교사

●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머니의 모국어를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가
 능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우리 남자선생님 한분이 베트남 언마네 집에 수업을 가게 됐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
 서 베트남 언어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가는. 언마가 거기서 벌써 조금 마음이 놓
 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마한테 웃으면서 어머니 그러면 커피한잔 달라고 하면 어떻
 게 해야 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언마가 하는 말을 한국말로 그걸 적어
 놔다가 나중에 언마 물주세요. 커피주세요. 그 말로 해주는 거에 그런 센스 있었으
 면.”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 아동교육뿐만이 아니라 상담 및 부모교육이 가능한 전문지식

이밖에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상담 및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자질을 국제결
 혼가정 한국어교사의 중요한 요건으로 거론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 처
 음만나는 한국어교사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되며 믿음을 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베트남 어머니: 전문적 언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일본 어머니: 저두요.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 이해를
 해 줄 것 같구.
 베트남 어머니: 외국 사람을 가르쳐 준적이 있는데 그래서 알아요. 같은 단어 가르쳐
 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베트남 어머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묻는 거이랑 시어머니
 에게 물어보는 거이랑 대답이 달라요. 남편은 박사까지 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 달라요. 어머니는 보통사람. 전문적 지식은 없으니까 깊이는 안 되는 거

가타요.

- 다문화 어머니들과의 대화(베트남, 일본출신)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이상적인 교사로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바라고 있었다.

“Skill, she know how to teaching skill.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줄 몰라요. 저기 집에 찾아오면 누구 가르쳐요? 아들 업마 같이 안 될까요? 업마하고 우리 딸 같이 공부할 수 있게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업마하고 딸, 아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업마 알아, 딸도 알아. 이거 좋아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필리핀출신)

● 기타 인성 특성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교사로서 인성적인 자질 또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었다. 이상적인 교사는 국제결혼가정 마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보이는 차이를 인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잘 들어주는 태도

“(일방가정에서와) 똑같이 해야 되고요, 똑같이 하되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아이나 업마, 특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업마. 업마가 불안한 상태잖아요. 아이나 업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상세하게 설명 해주고, 상담을 대충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마치고 난후에 오늘 수업 있었던 내용을 끝까지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차후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학습에 비전이 있다는 거까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잘 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 신뢰감

“처음은 두려워하지말 일단 우리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우리를 받아, 우리도 그들을 볼 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어후 저 외국인 업마 저기 다른 나라에 있지. 이젠데 시집와서 이렇게 봤을 거잖 많이 예요. 어 저 애기가 저렇게 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데. 그 두려운 업마를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가면 그 사람도 우리말을 알아주고, 무조건 믿는다는 거 그때는 제가 자꾸 교사를 강조하고 업마를 강조하는 게 물어주시니까 실망시키지 마라 이거죠. 이사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 예요.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 업마가 나

를 몰라줘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해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줘야지 그 얼마나 믿고 우리가 하라는 데로 할 거냐 말이 예요... (중략)... 근데 분명히 이런 엄마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할 거냐 말이 예요. 우월 떨어준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는 우리를 완전히 떨어주거나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를 멀게끔 탁 못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못 믿죠. 그런 마음만 생기게 해줘야지.”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 인내력

“머리 복지관에서 맡으시기를 이 어머니는 수업시간에 잘 안 오고 거의 마음대로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맡음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저 댕에는 마음을 열고 진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 처음에는 되게 인식이 좋고 그 어머니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렇게 맡음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드리니까 아프다고 어디 간다고 이렇게 맡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추워서 못 오겠다고 이렇게 맡으시고. 그때 조금 실망을 느꼈어요. 제 댕에는 다른 어머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어머니한테 최대한 개가 첫 선생님이니까 좋은 경험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조금 그럴 때는 조금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3) 교육내용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인성교육의 측면을 포괄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 면에서는 읽고 쓰기의 기능적 학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성교육의 측면을 포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같은 동아시아권 끼리 결혼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엄마 어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먼저 엄마가 위축되기 때문이고, 그 위축은 주위사람의 영향인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한글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기 직

전에 읽고 쓰고는 다 해요. 문제는 1, 2학년 올라가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을 할당 맡이예요. 맡하기에서 그렇고. 일기쓰기, 글짓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때 내면의 생각이 드러나는 시기에 이 아이들이 위축되게 표현이 될 거란 맡이예요. 관 전이라든지. 이런 게...그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표현해 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교육자요, 지금 현재의 교재를 가지고는 해줄 수 없거든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 교사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체감에 관한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정체감 문제는 많은 부분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체감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어머니의 문화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어머니의 문화에 관한 내용 부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학습내용에 어머니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한글학습을 위해서는 아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의 문화를 경시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문화 간 편견을 없애고, 어머니의 문화도 아버지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머니의 문화에 대한 존중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되기 때문이다.

“십지여 엄마들이 얼마나 위축되어있냐면 태교를 할 때 한국어는 못하고, 아빠나 주변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냥 웅고...자기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한국말은 몇 마디 못하니까 위축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에서 확 위축되니까 애를 낳을 때부터 아이가 말할 때부터 성장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아이는 6,7살까지 8살 이때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요. 태극기 무궁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쓴다 맡이예요. 그러면 아예 다른 교재 뭐 펴리핀 남의 나라 꽃. 제가 꽃 이름은 모르는 구나... 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한국교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교재들...”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 교사

“애가 어린이집을 2년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엄마 말투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어눌했어요. 문법이 안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배우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하고 애들이 그

경 컨트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윤준 들어서는, 어제 TV에서 동남아 계열을 가난하게 나오고 미국이나 유럽은 부자로 나오고 하니깐 큰 애가 엄마는 펄리핀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고, 그것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계속 펄리핀이나 동남아는 가난하다, 이런 거만 계속 TV에서 보여주고 미국사람은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는 미국사람이야, 왜 펄리핀 사람이야 그러고 펄리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펄리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올해는 가길 싫어하더라고요. 쥔 있으면 갈 텐데,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 국제결혼가정 아버지

한국어학습의 기술적인 내용 면에서는 한글자모학습 이전에 아동의 해당 연령 수준에 적합한 말하기, 듣기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쓰기 능력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한글자모학습 이전에 연령수준에 적합한 말하기, 듣기학습

“전 한글 글자를 익히는 것보다 말하기 듣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친구들끼리 오해가 생겨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정말 말대로 쥔 배우고 하면 될 거 같아요. 저는 말하는 법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그 말을 풀 수 있는 그런 한국어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정이 이제 많이 정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제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글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정확하게 읽고 쓰기

“아이의 경우, 사실은 읽는 게 먼저 돼야 될 거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는 학교에 다니니까, 교육을 받는 거니까 어머니는 지금 공부를 안 해도 학교성적에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되면 되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부모들도 원망할 수 있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알집장쓰기?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면 알집장 쓰기에서 애들이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알집장 받아 못 써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받아쓰기가 안돼서 선생님

이 얘기 하는걸 제대로 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쓰기는 안
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구성

또한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습이지만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구성을 바
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엄마에 대한 케어. 자기 아이가 뭘 배우고 있
고, 자기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있는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가이드북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엄마들도 자극을 줘야 해요. 당신이 손 놓고 있
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아이가 수준이 높아 가면 엄마도 같이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엄마도 2, 3학년 정도의 한글수준이 같이 서로 맞아 가면 좋거
든요. 그게 한상적인 거 같아요. 항상 엄마들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엄마들도 같이.
같이 올라가야 해요. 엄마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가뜰
이나 부모님에 대한 안하는데 자기가 대화가 안 될 거라 걱정한다는 거지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P 교사

한 한국어교사는 어머니와 학습과 자녀의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체적인 한국어 교육은 아니지만 읽기, 쓰기를 10-15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동화를 통해 읽기, 쓰기를 해보는데, 동화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래동화를 한글로 옮겨 써보는 활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서 대화가
더 들어가고, 재미있도록 구성, 각국의 전래동화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활
동을 해보려고 해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L-1 교사

●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내용 풍부하게

특히 교재의 내용이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때에는 자녀뿐만
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
용으로 무엇보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 문화
에 대한 이해부족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고자 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글을 접하게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라

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 저희 교재가, 그러니까 저희 국어에서 필요한 글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애들이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제 뭐, 그 고학년이 됐거나 중학생이 됐을 때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더라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뭐 이제 교재를 말고 책 종류의, 거의 보는 책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뭐, 워인전 아니면 역사책 그런 종류인데, 저희 교재에서는 글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글의 종류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그러나 한국 문화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글과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더 나아가 한국의 초등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화 편파적인 내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한국어교사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 문화 편파적 내용의 침묵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달일민족이라는... 기존의 교재에서 너무 한국적인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본인들이 자꾸 한국, 한국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초급까지는 괜찮지만 사실은 말자체도 교재에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쓰면 배제하는 거잖아요? 저도, 교사도 바꾸기 힘든 건데... 난 이미 한국에 살고 있고,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귀찮으면 확실히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자꾸 다른 나라 사람이란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잖아요? ... (중략)... 이런 다문화 속에서는 ‘한국은요.’ 소개하고 ‘몽골은 어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재 안에서 확실히 교과서니까요? 몽골은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죠? 운문을 했죠. 한국은? 하고 고쳤어요. 단순하지만 읽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L-1 교사

“그렇게요. 쯤 이제 볼라고 하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뭐 입진태한 때도 있고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일본을 비방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는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옛날에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혹시 애들한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르치면

옆에서 듣고 오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개하고 다니지 말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가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역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에 학교에서 그 5학년, 6학년 되면 그 이야기 일제시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싸우고 이기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어땠냐고, 그게 어땠냐고, 얼마 아빠가 한국사람, 일본사람인데 그게 그런데 어땠냐고, 옛날이야기야. 앞으로 제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국제시대의 선구자라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일본출신)

●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추가

취학 전이라는 연령적 특성 때문에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학교준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국어학습을 위한 기능적 준비만이 아니라 한국의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한 물리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준비를 돕는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학 전, 진짜 취학 전이라면, 내년엔 당장 학교를 가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미리 접해 볼 수 있게끔... 학교생활이 이렇다는 걸 학교교육이 이렇다는 걸 업마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책상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이런 말하고 두드리고 가 아니라 정말 글을 좀 쓰고, 쓰는 순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 있죠?... (중략)... 학교 첫째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예비초등, 예비초등이라고 해서, 희한한 말 많죠. 예비초등에서 7세들 아이는 내년엔 학교가야 하니까 당장 학교가려면 얼마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요. 가방은 크기는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낫고요. 생활 계획표는 이렇게 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1학년들이 받아쓰기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7살 정도는 이게 실생활이야. 경현이 아니고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을 많이...”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방법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준비학습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음. 그거는 따로 이렇게요. 이제 저희는 책이 또 7세 애들을 위해서 예비 초등 교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문화 친구한테 도움이. 보통 기본 애들이 7

세 친구들은 예비초등학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받아쓰기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일기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준비물은 어떻게 챙기는지 알집장쓰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초등 7세에 딱 따르 있거든요. 그걸 어머니님 드리니까 어머니들이 어머니 제가 이거 읽어보고,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시니까 읽어보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7세 씩크랴이라는 그 이제 7세 어머니님 모아놓고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는데 교육도 있어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4) 교육방법

취학 전 자녀들의 국어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준비도와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가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는, 교육의 형태가 재미있는 놀이 식 수업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뿐 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취학 전 연령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면에서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위해 적은 교육비용과 찾아가는 방문교육방안의 모색, 잦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 학습준비도 및 교육수준 평가체계 필요

일반가정의 자녀와는 달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들의 생활과 언어-교육적 환경에 따라 국어학습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가정의 자녀가 해당 연령에서 기대되는 보편적인 수준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과는 달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월 수가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이도 좀 다르고...유아가 왜 사실 3세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친구들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그 친구들마다 또 어머니들이 신경써주시는 것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우리나라 친구들은 어느 정도 5세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정도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값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재미있는 놀이형태의 한글학습

“놀이 식으로 수업하는 게 일단 공부 자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 보다 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참여도도 쏠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들은 집중시간도 짧고 또 주의도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놀이 식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신체활동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게임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취학 전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아이들 대부분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그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랜창을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J 방문교사

국제결혼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필요가 지적되었다. 즉, 적은 교육비용과 찾아가는 방문교육방안의 모색, 잦은 교육 횟수와 시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 교육지원 혜택의 확대: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국제결혼가정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저는 뭐 애기 아빠 직장도 안 좋고, 뭐 어쩔 적에는 일하러가고 일하러 가면 매일가면 몰라도 직장이 뭐 인사는 불경기라 맨날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보름 일하나마다 그렇고, 또 무리하게 돈 내는 것도 그렇고 뭐 그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교육지원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알고 있다고 하여도 밖으로 나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움 가정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육홍보 역시 중요한 고려 책이 되어야 한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은 저학년하고 지금 댕깁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어머님들이 쏠 트여있고, 아이 교육이 되는 아이들은 저학년들이 댕깁는 거고, 정말 그, 뭐

5살인데 정말 우리나라 말 의사소통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다 지금 밑에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령 정도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이런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형 한국어 교육지원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가족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우선적인 방법으로 방문 형 학습지원제도가 이야기 되었다. 교사가 직접 국제결혼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적 맥락 안에 복합적으로 잠재해 있는 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구자: 약약에 이주여성의 자녀를 위해 방문형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요?

한국어교사: 부모님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 하지요? 그런데 그게 협조가 있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외부사람 오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너무 밖을 많이 알아가지고, 밖으로 나 갈까봐 그것도 우려하는 남편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연구자: 방문형태의 교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국어교사: 장점은 학습향상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보다 학습지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습만 딱 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이 정말 부부관계도 좋고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많거든요. 다반사에 대해 뭔가 의논하고 싶어 하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어른 입장에서 1:1 학습도 좋은 거 같아요.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가족지원센터 L 교사와의 대화

다음의 대화사례에서는 방문 학습지로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가 말하는 방문교육에 관한 의견을 알 수 있다.

노○○: 애가 3월에 학교 가잖아요, 한 시간이나도 제겐 큰 도움이거든요. 그리고 제 가 학습지를 하나 시켰어요.

연구자: 어떤 거 시키셨어요?

노○○: 재○○이요. 한 달에 3만 5천원 이에요.

연구자: 댁에서 따로 시키신 거예요?

노○○: 제가 따로 시킨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일주에 한 번 오잖아요. 한 15분 정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또 엄마는 각별히 애가 났음이 정확하지 않고 단어를 잘 기억 못해도 같이 줘 해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래도 저한테 큰 도움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작은애는 어린이집에서 기억, 니은을 배웠어요. 근 데 큰 애는 그 당시에 못 보냈죠. 2005년도가 6년도가 뭐 혜택 받는 거 있 어요. 그거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보낸 거예요

연구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십오 분 동안이라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고 해주면 도움이 되시나요?

노○○: 저 생각에 얼마나해서 한국 얼마면 엄마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읽어주고 같이 써 주고 놓고 되는데, 저는 뭐 같이 써주고 읽어주고 그런 거 못 해잖아요? 뭐 이전 거 어떻게 돈 주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와의 대화

실제 국제결혼가정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했던 국어교사들이 지적인 방문 형 국어학습 지원을 통해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

“집으로 방문하게 되면 일단 엄마, 선생님들이 그 집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더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고요.. (중략)...그러니 까 집에 가보면 아,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살고, 아니면 뭐 아빠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하고 생활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일단은 이 아이하고만 할 수 있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 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학습상태가 어떻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주변에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생활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중략)...공부 이외의 사적 인 얘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가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교육부분에서는 얼마상당을 제가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중략)...엄마가 뭐 중국 사람이라서 괜히 의식 하고 하시기 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설명하는 게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아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 어머니들의 의식변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머니의 의식도 좀 변화를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하고 이 시기 안에 이 만큼 해야 되고, 수업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려 애는 지금 이 나이면 어느 정도의 학습이 돼야지 다른 친구들과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데 그런 부분을 어머니한테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 많은 교육정보도 많이 드릴 수 있거든요...(중략)...왜 어떤 나라는 교육을 되게 의목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또 교육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어머니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갈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학습기회 증가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왜 복지관이 지금 한 군데서 거의 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다 복지관에 이런 시설이 어머니들이 멀리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40분을...이 어머니들은 또 버스타고 40분을 걸어서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그 지역마다 그 힘든 어머니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늘여주시면 어머니들이 굳이 그렇게 추운데 멀리 나오시지 않아도 가까운데서 어디서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자녀의 사회적 경험 확대

“일단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거기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과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학습지)선생님과도 좋은 유대감을 일단 먼저 갖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리거든요. 의외로 그런 그 어린이집들은 첫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많이 기다리고 하면서 좀 좋은 사회경험의 기초가 되는 거 같아요. 또래친구들과고 어울리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 뒤편에 다른 좋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같거든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 잦은 교육 횟수와 시간

교사 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 매우 어린연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학습은 주 1회 15분가량에 그치고 있으며, 교사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에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방문학습체제를 그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은 현재 가정에서 일반적인 방문학습지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의견이다.

연구자: 재○교육으로 방문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다면?

노○○: 그냥 시간만 지키고 급방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제일 그거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애가 재미 있게 애하고 조금만 줘 애가...그렇게 너무 거 뭐예요 너무 책을 의지하고 한국말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책만 읽죠...

연구자: 물건만 딱 가르치고 갑니까?

노○○: 하! 어, 애가 아직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재미를, 애가 공부하기 좋게 가르쳐 주는 그거가 기본 아니냐고요?

연구자: 그렇죠. 맞아요.

노○○: 근데 선생님 댁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제가 제일...애가 처음에는 그 선생님 좋아 했어요. 근데 한 달 됐는데 싫어한대. 저보고 남자 선생님 여자한테 바꿔 달래 또 저번에 여자 선생님은 약해 보이니까 수업하다가 ‘선생님 가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와의 대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일반가정의 어머니와는 달리 교사의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과 횟수로 방문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나는 다른 거보다 내가 뭐 이렇게 잘 못 배워주니까 선생님이라도 뭐 댁가지고 이렇게 시간 좀 조금 강하게 하더라도 반시강이더라도 이렇게 좀 더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주 오는 것도 좋죠...”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중국출신)

“그러면 그 부분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도 갈 수 있도록. 갭이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두 번 정도여서 한국은 애들이 늦게 떼거든요. 사실. 보통 한국 아이들보다도.

그래서 두 번 정도 방문하면 그 갭이 좁아지니까. 또 관리가 좀 쉽죠.”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5) 어머니의 참여촉진을 위한 전략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른 일반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어머니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녀와 함께 어머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은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글이나 국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나 아니면 뭐 뜻 이해가 안 되면 아이한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될 수 있잖아요...(중략)...모든 어머니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다 이해하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게 다 된다면 사실은 뭐 힘든 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중간에 가교역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어머니들이 아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복습을 시켜주는 어떤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글을 따로 수업하고 아이가 따로 한글 수업하는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걸 같이 이절게 이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지국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에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할 때 자녀의 학습을 위해 기대되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수행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부모교육 병행: 가정교육에서 기대하는 어머니의 역할 수행 지지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 자신이 이야기했던 어머니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베트남출신 어머니: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
기 말고 더 시골 등에 있는 이주자들, 한국 남자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은 나라에 이주자로 갈 수 있고, 한국의 남자들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처럼
능력 없는 여자들이 한국남자들과 결혼 하는 경우가 많은데...그러한 이주여
성들은 수준이 낮아 교재를 준다고 해도 아이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생
각해도 이러한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출신 어머니: 언마가 포기하면 아이를 가르칠 수 없고 그것은 아니다 싫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요. 언마가 무엇보다 알아야 하는데 가정방문을 해줘도 부모가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언마를 도와줘야 해요. 언마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를 풀 수 있는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언마의 모국어로 이해 한 후 아이를 가르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다문화 어머니들(베트남, 일본출신)의 대화

그러나 어머니에게 필요한 역할은 능숙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가 서툴더라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집의 경험을 보면은 언마가 밖에 잘 때 항상 마사지를 해주고 책을 하나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발음이 안 좋은 우리 집사람이 읽어 주는 동화책을 좋아해요. 아빠가 읽어 주는 것보다. 한국어 교사인 아빠가, 한국 사람이 동화책을 읽어 주는 것보다 언마가 안 좋은 발음이지만 읽어주는 그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서적인 문제인거 같아요. 언마가 해주는 그 동화책, 언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게 더 강하게 있는 거 같아요.”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거정지원센터 S 교사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자신이 효율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에 늘 불안해하고 자신감 또한 낮았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길러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한국어 학습에 높은 동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예진이를 가르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언마를 도우는 게 좋아요? (잘 못 알아들어 다시 질문) ○○가 예진이 가르칠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게 좋아요?, ○○가 예진이를 직접 가르치도록.

김○○: 아냐, 언마 처음 배워야지 제가 도와 아이 가르칠 수 있어요. 똑같이 공부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딸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연구자: 그거 영어로 말해도 괜찮아요.

김○○: *First they teach this me, after than I will teach this to my daughter. That will be more better.*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필리핀출신)와의 대화

“어머니 자체가요 열정은 있어요. 자기자식이니까, 가르쳐야된다는 사명감도 있고,

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참여를 하려고해도 힘든 게,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체해줄 교재도 없고, 표준화된 그런 것도 없고, 다 없으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열의는 있지만, 자꾸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이제 포기상태로 가는 거죠.”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가정지원센터 S 교사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어머니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지원과 스스로가 효율성을 가지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요. 조금 무서워 있어요. 예진엄마는 외국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진이 친구는 엄마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조금 못해, 내 생각 제일 무서워요. 나중에 예진이 나 미워할까봐. 빨리빨리 아 한국말 문헌 잘해. 나 한국말 할 수 있어. 한국에 사니까 다 한국말 어떻게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하면 좋겠어. 랑따 아니야. 제일 싫어 우리 딸 랑따 안돼요.”

- 국제결혼가정 어머니(필리핀출신)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 어머니의 보조적 지도가 가능한 지침교안 부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거론 된 것은 어머니용 지침서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정에서도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아이의 교재를 만든데, 부모의 참여를 유도해주게 한다면요? 책의 내용 구성을 액티비티 같은 것으로 한다면...별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지요? 부록처럼. 그런 활동이 나든지...참여가 100% 되지 안 되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참여해서 게임한다거나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가장 친밀감을 느낄 때가 게임을 할 때겠지요. 게임을 해서 왜 적적하면 마음의 문을 빨리 열잖아요. 부모간의 관계나든가 그런 것을 밀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부모와 자식 간의 스킨십이 없으면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엄마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모르잖아.’ 부모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가정지원센터 L교사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마들을 위한. 부모, 엄마들을 위한 워크북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한주를 마치고, 이번 주는 요건요건 학습인데, 집에서 엄마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왜 하냐하면, 엄마는 왜 이렇게 하냐하면 이전이건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를 위한 한 주 샘플 교재를 같이 넣어 준다거나, 그래서 엄마한테 이걸 교재를 샘플로 한번 해 주시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수업을 해보고, 엄마 이거 해 보셨죠? 그리고 엄마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했던 거하고 다음 주 글자가 이렇게 달라지죠? 엄마도 확실하게 100% 우리나라 말 모르실 거잖아요. 못 쓰실 거잖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P 방문교사

연구자: 아까 엄마가 참여하는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하셨는데 엄마들에 따라 수준이 다른 텐데 어떻게 구현하는 게...

한국어교사: 엄마들의 가이드북은, 그런 거 한거는 참여하는... 관심도 차이, 엄마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엄마가 유도하고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하는... 도움을 주는 정도지, 엄마가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연구자: 조금만 어머님들의 경우는 어렵겠네요.

한국어교사: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요.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재에 옆에 팁으로 “엄마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쉽게 해 주던가, 지시문을 갖다가 따로 별표를 해 주던가. “엄마가보세요” 그때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러면서 엄마가 따로 복잡하게 가이드북 안 봐도 괜찮을 거 같고... 학습지 제가 오래 해봤지만 엄마가 관심 없으면 절대 못해요. 엄마가 애가 어느 정도 하는지 엄마도 알아야하는데, 이거 외국 엄마라고 모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엄마 관심 없으면 쌓이는 것도 시간문제고 그깟두는 것도 더 시간문제예요.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자센터 L-2 교사와의 대화

● 어머니의 모국어로 된 다국적 버전의 지침서 또는 학습 안내문 부가

앞서 한국어교사들이 지적한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자녀교육에서 어머니 역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용 지침서나 안내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서나 안내문이 일반 영유아용 교재의 부모용 지침서와 같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저희가 도입부분은 거의 선생님이 이루어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다 보면은 이 앞쪽에 저희가 해주는 부분은 개념부분이고 도입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머니가 숙제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머니들한테 어머니들이 이 글을 읽고 아이들을 지도 하실 수 있는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린 단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도 어머니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머니 스스로 이렇게 아이를 일대일로 바로 그냥 지도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연결되네요. 이전 부분이(한국 교재 중 부모용 안내문 부분을 가리킴) 사실 한국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머니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적어봤자 이렇게 글을 읽는다고 하셔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모국어로 한번 설명이 된 있으면 어머니가 이 수업을 왜 하는지 이 부분에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짚을 수 있을 거 같아요.”

- 대구지역 00학습지 B 방문교사

“약약에 학습지로 방문을 들어간 다 그러면 한국 교재는 괜찮은데 교재 안에 아니면 부교재로 엄마용 가이드북이 한국로 말고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정도, 가장 많은 민족들 언어들이라도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번 오신 다 그러면 44장 정도도 충분할 거 같거든요. 이번 주에는 뭐를 배우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가면 좋겠다는 거죠.”

- 서울지역 푸른시민연대 이주노동센터 P 교사

● 언제나 교육지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모용 상담창구 개설

앞서 부모용 지침서와 안내문을 통해 어머니가 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은 교재나 학습내용 안에서만 해결될 수는 없다. 교재 바깥에서 다루어주어야 하는 문제, 일상생활과 가정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어교사: 특별히 외국인 엄마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On-line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다가 궁금하면 물어 볼 수 있는. 그게 뭐 인터넷이던, 전화가 됐던, Hot-Line 설치를 하던, 어떻게 해서 언젠지 On-Line으로 된 대한 창구가 있으면...

연구자: 그런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On-line*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되시는지요?

한국어교사: 뭐 인터넷은 우리나라가 많이 정말 잘 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배우면 되니까, 그 정도는 이메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 배운 사람들은 다 할 줄 안다고 보고...

연구자: 어머니들의 학력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한국어교사: 차이는 있는데, 교육시키면 됩니다. 뭐 인터넷은 지능은 아니니까. 거의 기능적인 것이니까. 내가 뭐 오토바이 탄다, 자전거 탄다. 비슷한 거니까. 몇 분만 가르쳐 주면 다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집집마다 다 깔려있는 나가기 때문에 쓰면 되요.

- 인천지역 여성복지관 결혼이주거정지원센터 S 교사와의 대화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사의 의견과 같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on-line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보, 어머니 이용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제안

1.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앞의 교재분석에서 첫 번째 분석의 기준으로 지적했던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인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 인지를 진지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학습자인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개인적 차원

-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아동의 다중언어 습득 능력을 바람직하게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일반가정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과 그 근본적인 철학에서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즉 **다문화 가정적 맥락에 속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이건 자녀이건, 개인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느 교재에선가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결혼 이민여성을 우리의 며느리로서.....’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며느리가 맞고, 취학 전 유아가 이민자 여성의 딸과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보다도 더 먼저 개인의 역량과 언어적 잠재성의 발현과 성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그 개인이 소유한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2) 국제결혼가정적 차원

- 국제결혼가정이 지니고 있는 다중 언어적 잠재력과 능력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결혼가정은 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언어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이 가정에서 자라는 유아들이 두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지지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나 인간 유아가 가진 놀라운 언어적 잠재력은 두 개의 언어를 통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영유아기 시기에 제대로 된 다중 언어 교육을 제공받는 경우에 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발생한다. 먼저 다문화 가정 **유아 개인에게는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익혀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모국어를 강력한 언어적 도구로 유지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위의 두 조건이 존중되고 충족되는 상황 하에서만 다중언어가 공존하는 가정에서의 모-자녀 간에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이루어 낼 수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부모와 자녀의 교육적 기회로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국가적 차원

- 국제결혼가정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종전의 다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다문화 가정에게 과도기적으로 2, 3년 동안만 다문화 가정의 모국어로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과도기적 이중 언어 교육이 행해졌었다. 그러다가 이었다. 7-80년대로 오면서 일정 적응하는 기간 동안 만 과도기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해서 완전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문화 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모국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첨가하여 모국어처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영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취한다고 보여 진다. 이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잠재력 개발 측면에서의 이중 언어 교육이다. 그러나다 최근 다중언어 교육과 다중언어를 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종래에 소수 언어의 사용과 교육을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의 측면으로, 그리고 다시 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박영순, 2007a). 이는 개인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차원에서도 이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제고하는 장치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화시대의 핵심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 그리고 다중언어 사용 능력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측면에서의 한국어 교육

Goodnough(1963)에 따르면 문화는 실세계의 경험 및 과거의 노력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하는 방법이다(박갑수, 2005. 재인용)

문화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어떻게 느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기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기준, 어떻게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다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적합한 교육정책 수립, 교육 제도의 마련, 교육연구 방법, 교육자료 개발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만들어 나가야하고,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 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Goodnough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2.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의 철학과 접근

이 부분은 교재분석에서 두 번째 분석 기준이었던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관’에 대한 것이다. 언어에 대한 관점은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획득되게 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 그리고 교사의 관계를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이 어떤 교육적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1) 언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시스템즈 모델(systems models)(Csikszentmihalyi, 1988)은 창의성의 분야에서 창의적 산물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개인적 조건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접근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시스템적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이 아동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정의 대다수가 저소

특층이며, 또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로 인해 그 자녀들은 교육적 소외나 빈곤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스템즈 모델을 적용해서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을 바라보자면, 여기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국어(domain 영역)**, **교사(field 분야)**, **국제결혼가정의 모-자녀(individual 개인)**이다. 시스템즈 모델이 강조하는 것은 세요인, 영역과 분야와 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개인과 분야 그리고 해당 영역(domain)이라는 세 시스템들이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산출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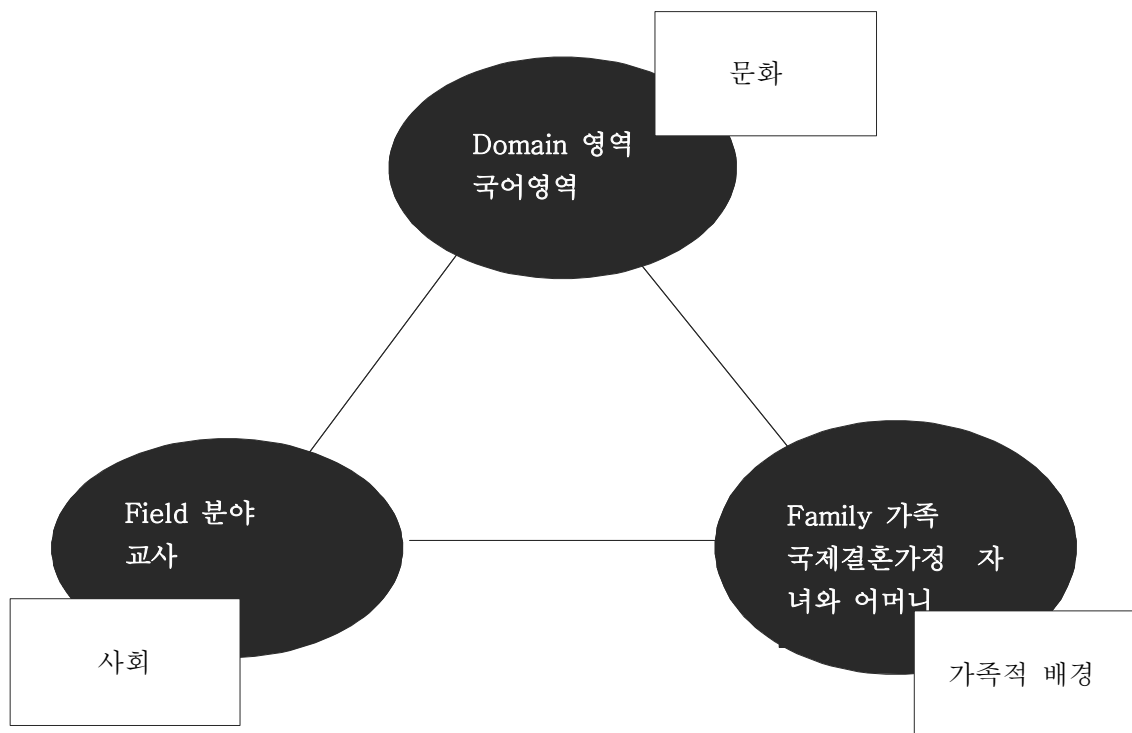


그림 4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스템즈 모델의 적용

(1) 영역: 국어

이 모델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와 모의 한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영역(domain) 지식의 명료화와 조직화**이다. 이를 한국어 교육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한국어 교육적 지식의 명료성과 조직화이다. 이는 이 영역을 배우고 이에 영향을 받는 개인 즉 국제결혼가정의 취학 전 자녀나 모의 영역관련 지식의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호중심이니 총체적언어이니, 언어 학습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접근을 취하느냐? 이것이 모두 이 영역의 부분에 속하는 것들이다. 영역의 지식과 구조화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나 모가 받게 될 교육적 환경이나 자극, 그

리고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임은 명확하다.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설정해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영역은 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능을 한다. 10년전 만 해도 국어 영역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교육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교육과정 교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영역은 항해에서 조정기와 같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국제결혼가정의 모-자, 그리고 교사,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모두 그 배에 태워져 조정기가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영역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국어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국어는 삶을 잘 기능하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국어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부모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어머니들에게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자녀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국어이다. 이러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국어에 대한 지각과 두려움의 태도를 아이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느낀다. 불안 상태에서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새로운 국제결혼가정 모와 자녀의 한글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과제는 이러한 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즐기는 도구적 대상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정, 국어 교재를 개발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는 언어에 대한 상이며 철학이다.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국어가 아닌 즐거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 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언어, 정서 상태를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을 채택해야만 쉬운 한국어 교육, 즐거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의 최대의 수혜자는 국제결혼가정의 모와 자녀가 될 것이며 이것이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와 모의 한글교육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2) 분야: 교사

두 번째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분야(field)**이다. 분야는 개인보다는 영역과 훨씬 더 가까운 영역 전문가이다. 이 모델에서 바람직한 분야에 속한 분야의 역할은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을 지원하고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기대와 인정과 희망, 기회,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분야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원인 셈이다. 분야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해당 영역 내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매우 어렵다.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분야는 바로 교사이다.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와 모를 지원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자이자. 직접적인 교수, 역할 모델, 중재와 지원을 제공하는 완충자이자 촉진자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역관련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 발전

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격적 소양을 겸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분야는 사회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방문학습지 교사의 역할은 일반 가정의 자녀를 부모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르쳐왔다. 부모 참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사의 제공하거나 지원해주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모 개별적으로 수행되거나 참여되는 형태였다. 현재 방문학습 형태의 한국어 교육을 자녀가 받고 있는 몽골 출신의 36세 어머니의 인터뷰에 따르면 왜 일반가정의 방문학습 교사와 차별화가 이루어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다.

시간이 너무 짧고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낸다. 시간을 지켜주지 않을 때가 있다. 좀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매번 정해진 것만을 하고 간다. 얼마만큼 할 때는 장난치지만 선생님이 오시면...정해진 시간에 앉아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얼마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집중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데...나는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배우는데...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몽골출신)

(3) 가족: 자녀와 어머니

셋째로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인 **개인(Individual)**은 바로 국제결혼가정 내의 취약한 자녀와 어머니이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전체이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경험했던 영미권의 경우도 비문해 성인과 자녀 모두를 교육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가족문해’(family literacy) 개념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문해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으로서 부모와 가족의 문해환경이 아동의 문해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은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문해 센터’를 통해 소수민족이나 이민자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문해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키고 있다 (National center for Family Literacy, 2005).

아무리 좋은 다중언어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교재가 개발 한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적 자극과 문해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머니와 가족 변인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푸른 시민 연대 노동자 센터의 한글 교사의 말을 빌리면, **어머니들도 자극을 주어야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며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배워나가도록 격려해야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의 접근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의 과정의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필히 새로운 부모 역할과 교사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전달이 아닌 상호교류적 접근(Transaction approach not transmission)

상호교류 모델(transaction model)은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이다. 학습자가 배우기 위해서 사람이나 책을 포함한 외부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Weaver, 1990). 다음의 <표 12>는 상호교류(transaction) 접근과 전달(transmission) 접근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적 접근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2. 전달모델과 상호교류 모델의 비교

전달 모델	상호교류 모델
프로그램과 교사에 의해 통제되는 직접적인 교수 강조	통제가 아니라 교사에 의해 촉진되는 학습을 강조
학습의 행동주의 모델에 기초 (Skinner)	학습의 인지사회적 모델에 기초 (Vygotsky)
학습이란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더 작은 것에서 더 확장된 skill을 구축해 가는 것	과제에서 부분이란 전체 의미 있는 맥락 내에서 더 쉽게 배우게 하는 요소로 간주
학습이란 습관을 형성 하는 것.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고 쓰는 것이 중요	학습이란 교사에 의해서 촉진되기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상되는 복잡한 인지과정의 결과물
정확성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risk-taking을 잘 안한다.	risk-taking과 그에 따른 오류는 학습에 필수적 요소
모든 학습자는 모든 배운 것을 숙달해야 함. 그래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가 실패를 경험함.	학습자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을 발달시키고, 각자 다른 단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움. 따라서 여기에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음
미리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산출해 내는 능력을 학습의 증거로 간주	지식을 적용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학습의 증거로 간주

상호교류 모델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시스템적 접근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식과 융통성을 지닌 사람이다.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학습 기회 부여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도전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할 기회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학습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국어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 개발 외에도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적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체계의 마련에 있다.

3.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체제

국제결혼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원 체제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

1) 국제결혼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양자적 관계 대 삼자적 관계(Dyadic vs. Triadic)

먼저 방문 학습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교육의 기회 측면이다.** 이준석(2007)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통 및 거주 환경에 따라 한국어 지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이들 어머니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부모나 남편의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주여성을 모아서하는 교육 보다는 개별 방문 교육의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학교’와 같은 교육의 형태를 취하거나 ‘방문 학습지’ 교육 방안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국제결혼가정으로 찾아가는 개별 교육은 각 가정 고유의 특성과 국어의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찾아가는 개별 방문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방문교육 시스템과는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방문 학습 시스템이 교사와 자녀 양자간에 일어나는 일대일 학습(dyadic learning)을 기본으로 한다면,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아동의 방문 한글 교육은 교사, 아동, 어머니가 일대일대일의 관계에서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triadic learning)이다. 이러한 학습이 왜 일대 이(1: 2)가 아니고 삼자간 일대일대일(1: 1: 1)의 학습인지는 뒤의 순향 학습(proactive learning-미리 한

발 앞서는 학습) 시스템 구축에서 설명될 것이다.

2) 국제결혼가정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집단별 한국어 교육

각 가정으로 교사가 찾아가서 1: 1: 1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교육 내용의 유사성, 교육 방식의 유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루함이나 피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교사, 동일한 부모와의 동일한 상호작용 패턴은 풍부한 구어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가정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2, 3세 때는 어휘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연령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볼 때(정은희, 2004), 다양한 구어환경의 자원에 자주 노출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이 영향은 더 지대해 질 것이다.

기관에서 시행하는 집단별 교육은 1차 적으로 개별 학습자에게 다양한 한국어 교육의 장을 제공해 줄 것이며, 다양한 구어적 상호작용의 기회와 원천이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그 동안 학습자 자신들이 해온 한국어 교육의 수행이나 결과물들을 서로 발표하고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 학습이나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을 부모들 끼리 서로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집단 + 개별교육의 형태

이상적인 것은 위의 두 형태 개별 교육과 집단별 교육이 병행되는 것인데, 만약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고려된다면, 한국어 교육 과정과 내용면에서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결혼가정 방문학습 한국어 교육의 장점

1) 가족문해 개념을 통한 자녀와 어머니의 동시적 한국어 교육

가족문해 교육은 자녀의 국어학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결혼가정 어머니 자신의 국어학습에 효과적이다.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국어를 학습하는 동안 읽기를 꺼리던 어머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문해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간다.

2)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역할 모델 제시

국제결혼가정 방문 학습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교사가 국제결혼가정 모-아동 한글교육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적 역할 모델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3) 각 국제결혼가정의 개별적 요구 수용가능

국제결혼가정 방문학습 한국어 교육은 아동의 수준과 부모의 국어 수준을 고려한 한글 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다. 또 한국에서의 적응 정도에 따라 주 교재 외의 필요한 정보와 교육 자료의 제공도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학 연령의 자녀 경우는 취학과 관련하여 학교 적응을 위한 여타 필요한 부분으로도 학습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하나 각 국제결혼가정의 생태적(주거지, 삶의 방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진다.

4) 각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가능

가정 방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사는 각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 부분은 집단별 수업에서는 고려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V. 방문학습지원 모델 구상 및 향후 사업화 방향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문학습지 원 표준모델

1) 철학이 있는 한국어 교육 모델

세계화 시대에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이유를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신감 증대에서부터, 국제결혼가정적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모델이다. 즉 단순히 한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이나 아동심리 상담적 접근을 고려한 모델로서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미와 아이들이 문화 간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해결 방안을 지원해주는 전인적인 교육 모델에 근간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으로서 국제결혼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어에 숙달하고 안하고는 이 한국어 교육 모델에 하위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2)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모델

(1) 모국어 변인의 고려

먼저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모국어 설명이 들어있는 경우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먼저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즉 국제결혼가정 부모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모국어로)로의 전개가 전제되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한국어 교재 베트남어 초급의 경우는 비교적 좋은 시도이고 사례에 속하지만 효율적인 이중 언어 배치로 구성 배치되었느냐는 좀 더 고민해 봐야할 지점

들이 있다.

(2) 연령과 국어 능력 수준의 고려

교재의 연령적 적합성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육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이는 같은 내용이라도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표현 방식과 접근법이 고려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교재의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난이도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한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인성교육과 취학 전 예비학교 교육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

이는 심층면담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국제결혼가정 특유의 요구 부분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어 교육을 그 자체로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넘어서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서로 좋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즉 교재는 단지 국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인성교육의 내용 까지를 고려하고 이를 포함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를 필요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학 후 적응과 학습에 있어서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다양한 방식으로 취학 후 학교 상황을 미리 가상 체험하는 과정을 교재 내에 또 부가적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받아쓰기나 일기쓰기, 준비물 파악하기 등과 같이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 뿐 아니라 학교 맥락에서 예상 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또래관계 등 학교생활에서의 대인관계적인 부분 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3) 체계적이되 혁신적인 한국어 교육 모델

(1)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국어교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권별로, 단원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세부적인 목표 외에도 한국어 교육이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아동과 부모와 교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3>은 이에 가능한 하나의 예이다.

표 1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목표 예

단계		1단계 - 말놀이 단계
단계 특성		한글학습의 구어적 기초 다지기
한국어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환경 조성 -정확한 한국어 발음 훈련 -말하기, 듣기 -구어와 문어간 관계 인식
국제 결혼 가정 특 정 적 목 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구어적 경험 ● 문자언어로의 노출 ● 구어 기반의 부모-자녀 놀이 식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한글교육에서 자기역할인식 ●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 자녀 한글교육의 기초 모델 학습 ● 한글교육을 위한 자기 역량 강화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 제시 -정확한 발음 -부모-자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 -미디어 활용 ● 놀이학습을 위한 역량강화

(2) 문법적인 요소나, 어휘, 문장 유형에 대한 난이도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고려되어진 교육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휘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 반가정의 어머니들이 아기 때부터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거나 하는 등의 언어 환경의 제공을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국어 교재는 풍부한 어휘를 담고 있어야 하며, 또 이들 어휘들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체화시키는 부가적인 과정을 고려한 교재개발이 요구된다.

(3) 구어와 문어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특유의 구어적 필요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

교육 기존의 대부분 유아용 한글 교재가 문자언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국제결 혼가정의 자녀나 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의 자녀는 초기 구어적 환경자극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발음이나 자연스런 억양 등 구어의

측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므로 읽고 쓰기의 문자언어 보다는 정확하게 말하고, 발음하고, 또 이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풍부한 자극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어적 측면이 탄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가 필요하다. 물론 구어를 강조한다고 해서 문어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어든 문어이든 언어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맥락과 조건을 조성**하고 이 맥락 내에서 최대한 구어와 문어 기능의 경험을 통해 국어를 배워나가게 해야 한다. 이는 구어와 문어가 조화로운 교재, 의미 있는 맥락 내에서 구어와 문어를 경험하게 하는 장치를 지닌 한국어 교육 과정과 그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총체적 언어 접근과 부호중심 접근을 동시에 고려한 한국어 교육

총체적 언어 접근처럼 의미 있는 언어적 맥락이나 상황 내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기능을 익히고 배우는 방식은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곧장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문자언어 자체를 숙달하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린다. 반면 부호중심접근은 다소 탈 의미적이고 탈 맥락 적인데 반해, 그 습득의 기간이 비교적 빠르다. 중요한 것은 **구어를 익히고, 문자언어를 처음 경험하는 어린 유아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총체적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구어와 문어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또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언어의 즐거움과 기능에 친숙해 지고 소리자와 문자의 인식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자모의 결합이나 소리와 음가의 결합 규칙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돌리게 된다.

(5) 평가에 대한 전환적 사고: 규준평가 대 포트폴리오 평가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과정별로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다. 이는 학습의 평가 부분과 연결되어 학습자 본인 스스로나 또 교사들로 하여금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나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이런 평가 시스템이 ‘국제결혼가정’이라는 변인, 그리고 ‘취학 전 자녀와 국어가 자유롭지 않은 어머니’라는 변인에도 적합할 것인가? 규준적 평가의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란 없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지속하려면 **규준-참조적 평가 시스템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평가시스템이기도 하다. 개별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자녀 고유의 발달 속도와 요구가 반영되려면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발달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비규준적인 평가 시스템이 적극 활용** 도입되어야 한다. 평가가 평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평가가 되려면 평가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보통 유아들의 경우,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결과를 모은 포트폴리오가 제 2의 문해 환경을 제공하며, 그것이 자신이 만들

어낸 결과물이므로 정서적으로 동기적으로 일반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효과를 내는 교재가 된다. 만약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모의 한국어 교육에 이런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교재 이외에도 **두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두 개의 교재 출현(emergent textbook)**이 생겨날 것이며, 이 새로운 교재는 두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이고도 긴밀한 구어적 의사소통의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이며, 이는 국어 습득이라는 목적 이외에 국제결혼가정 취학 전 자녀 한국어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6) 교육내용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의사 소통성을 지니는 한국어 교육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성이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뽑은 ‘이런 상황 이런 말 가르쳐 주세요 100선’, ‘아이들에게 이런 것 가르쳐 주고 싶어요. 100선’을 수집 선정하여 본 교재 내용으로 뿐 아니라 부교재 형식으로도 제공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4) 교육의 효과를 증진 측면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모델

(1)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국어 교육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의 유발은 교육 효과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재미있게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놀이식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어머니와 자녀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고 또 이를 통해 자녀와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의 내용 자체를 재미있는 지문이나 상황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범한 대화문이나 설명글보다는 속담이나 수수께끼 등의 재미있는 소재, 같은 문법이나 내용 어휘라도 시나 노래, 편지글, 계획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여 최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 내용 외에도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인 교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느끼는 교재의 난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삽화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적절한지 글씨의 크기가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예를 들어 아직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나 자녀를 위한 교재의 글씨는 현재 일반적인 교재에 비해 그 크기나 서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지시문이나 가이드 글 등

주로 부모들을 위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삽화도 표현적인 양식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림의 심미성을 지니는 삽화로 그려지도록 디자인의 원칙도 세심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국어 교육

교재 내용의 상황설정이나 등장인물의 선정 등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넘어 다문화적 관점의 개방성을 최대한 고려한 교재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사고방식을 암묵적으로 교육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3)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국어 교육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그 초점이 단지 한국어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삶의 방식과 비전을 함양해 나가게 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등장인물, 또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염두에 둔 교재기획과 개발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5) 새로운 교사 역할을 포함하는 한국어 교육 모델

(1) 역할 모델로서의 교사

본 연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새로운 한국어교사의 역할이다. 이는 단지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바람직한 교육의 방법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로서의 교사이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들 가정의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요구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구성원이 느끼는 일반가정이나 사회와의 불일치와 경계에서 완충장치(buffering)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사명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바람직한 다문화적 관점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꺼이 다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려고 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관계 및 상담 지식과 자질, 소통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사여야 할 것이다.

(2) 자격증 없는(unlicensed) 교사로서의 어머니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주요한 변인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를 배제한 교사의존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머니를 한국어 교육 체계로 끌어들이게 되면 이는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자신의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 당시부터 자녀를 위한 워크북과 어머니를 위한 교재 및 워크북을 별도로 지원, 어머니는 자녀의 진도 보다 먼저 한주 전에 자녀가 다음 주에 학습할 교재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미리 체크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머니에게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교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며 결국, 어머니는 **자녀보다 한발 먼저 나가는 proactive learning system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교재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자녀와 동일한 것과 어머니가 어느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어머니가 방문교사가 하는 역할을 이양 받으려면, 처음부터 어머니는 **제 2의 교사의 역할을 부여** 받아 시작해야 한다. 취학 전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첫 시발점이 구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어머니들도 얼마든지 교재내의 일부분을 미리 이해하고(모국어로도 제시 될 것이므로), 교사와 자녀가 있는 학습상황에서 온전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그냥 길러지지 않는다. 의기양양과 자기 확신은 작지만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성공해 내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는 단지 가르쳐야 할 대상 학습자가 아니다. 당당히 자녀의 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자격증 없는 교사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같은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있다.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자아개념을 높이려면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사용하게 하고 이를 축하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6) 다양한 운용의 방법을 포함하는 한국어 교육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적 특성을 보완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지침서나 한국어 교육교재에 대한 지침서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을 위해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나 연령별로 적절한 그림책, 문화지식 책을 소개하는 부가적인 교육 정보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향후 제품 방향: (주)웅진씽크빅

(1) 제품 개발 방향

● 제품 개발 주체

국립국어원, (주)웅진씽크빅과 개발 연구진 협업(제품 개발 주체 : (주)웅진씽크빅)

● 제품 개발 방향

취학 전 유아기에 국어학습의 필요성을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었듯이, 국립국어원과 (주)웅진씽크빅이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4단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그림 6설명).



그림 5. 향후 개발할 단계별 제품

(2) 제품 개요, 특징, 구성안, 학습관리모델, 매뉴얼, 교육자료

● 제품 소개

<p>말놀이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말놀이 단계 24주(6개월 프로그램) • 대상연령: 만 36개월 이상 • 제품 구성 : 본교재 : 말놀이 연습을 위한 오디오 교재(노래, 챗트, 손유희) 그림 중심의 쉬운 책 스피킹 팬 도입(가능성 여부 검토) interactive multimedia(단어 중심/녹음, 스피커 기능) 부모 활동 지침서 <p>위 디자인과는 상이함</p>
<p>글놀이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글놀이 단계 40주(10개월 프로그램) • 대상 연령 : 만 36개월 이상 제품 구성 : 동요 오디오 교재 스토리 중심의 쉬운 그림책 스피킹 팬 도입(가능성 여부 검토) interactive multimedia(문장, 대화 중심/녹음, 스피커 기능) 부모 활동 지침서(교재교구 활용법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가정보) <p>위 디자인과는 상이함</p>

● 교재 구성의 특징

(1) 선생님과 함께 놀면서 깨치는 프로그램(놀이강화 학습프로그램)

다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교구재를 통한 놀이식 한글 교재

(2) 체계적으로 생각을 넓혀주는 단계식 접근 방법

환경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어휘력 수준을 고려한 진단테스트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3) 언어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구현

문장요소는 심플한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어휘 수준은 더 낮추고, 많은 어휘로 구현한 교재

(4) 교재 내에 이해력 및 어휘력 향상을 위한 “이야기 나라(가칭)”탐재

매주 짧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읽어주어 이주여성 자녀에게 부족한 이해력 및 어휘력을 향상시킴

(5)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부모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부모 참여를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모로써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인드변화를 위한 교육이 들어감

그 외 가이드북 및 이주여성 가정에서 어려워하는 시기에 적절한 추천 도서 안내(그 주제와 관련된 도서 추천 -가이드북 수록)

● 단계별 구성안

표 14-1. 교재 1단계 구성안

단계		1단계 - 말놀이 단계
단계 특성		한글학습의 구어적 기초 다지기
한국어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환경 조성 -정확한 한국어 발음 훈련 -말하기, 듣기 -구어와 문어간 관계 인식
국제결혼가정특정목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구어적 경험 ● 문자언어로의 노출 ● 구어 기반의 부모-자녀 놀이 식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한글교육에서 자기역할인식 ●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 자녀 한글교육의 기초 모델 학습 ● 한글교육을 위한 자기 역량 강화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 제시 -정확한 발음 -부모-자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 -미디어 활용 ● 놀이학습을 위한 역량강화
	부가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놀이 연습을 위한 오디오 교재 (노래, 챗트, 손유희) ● 그림 중심의 쉬운 책 ● interactive multimedia (단어 중심/녹음, 스피커 기능) ● 부모 활동 지침서

표 14-2. 2단계 구성안

단계		2단계 - 글놀이 단계
단계 특성		한글학습의 문어적 기초 다지기
한국어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인식 -문자연어의 기능이해 -읽기자료 친숙성 증진
국 제 결 혼 가 정 특 정 적 목 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기반의 어휘력 확장 ● 풍부한 문어적 경험 ● 문자연어의 기능인식과 활용 ● 문자기반의 부모-자녀 놀이 식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연어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법 학습 ● 자녀 한글학습에서 부모역할의 자신감 경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놀이 활용 -문자 교수 방법 -미디어 활용 ● 본격적 한글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중심 -부모 필요 정보제공 ● 놀이학습을 위한 역량강화
	부가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요 오디오 교재 ● 스토리 중심의 쉬운 그림책 ● interactive multimedia (문장, 대화 중심/녹음, 스피커 기능) ● 부모 활동 지침서 (교재교구 활용법 +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가정보)

표 14-3. 3단계 구성안

단계		3단계 - 읽기놀이, 쓰기놀이 단계
단계 특성		본격적인 문자언어 획득
한국어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쓰기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숙한 읽기 -표준적인 쓰기 -문자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 문법요소의 정확한 활용
국제결혼가정특정적목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모의 음가 규칙 알고, 소리 내서 읽기 ● 국어 표준 맞춤법에 맞추어 쓰기 ● 국어문법 요소 익히기 ● 문자언어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 및 자발적 창출 ● 문자기반의 부모-자녀 간 놀이 식 상호작용의 즐거움 경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쓰기 지도를 위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법 학습 ● 자녀 한글학습에서 부모역할의 효능감 경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읽기, 쓰기 교수 방법 -미디어 활용 ● 한글교육과 국어교육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중심 -부모 필요 정보제공
	부가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워크 북 ● 맞춤법 익히기 용 보드게임 ● 문자습득을 위한 기능성 그림책 +오디오 북 ● interactive multimedia (한글맞춤법, 문법중심/스피커, 좌판입력 인식기능) ● 부모용 활동 지침서 (교재, 교구 활용법 +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가정보 + 어머니용 쓰기 워크북)

표 14-4. 4단계 구성안

단계		4단계 - 국어놀이 단계
단계 특성		본격적인 문자언어 획득
한국어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이해와 표현력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확장 -독해력 향상 -자기 표현적 글쓰기 -문어 관련 이해력과 표현력 증진 ● 학교준비
국제결혼가정특정목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어기반의 어휘력 확장 ● 다양한 장르의 문어경험 ● 독해력 향상 ● 글쓰기 연습 ● 문자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증대 ● 학교생활에 대한 예비지식 학습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읽기, 쓰기 학습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습득 ●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 및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 한글학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녀교육에서 자신의 유능한 역할 수행의 확신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이해와 표현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미디어 활용 ● 본격적 국어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중심 -부모 필요 정보제공 ● 상담가로서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된 학습내용을 숙달하기 위한 아동과 부모의 지지 -학교생활과 관련된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과 두려움 해소
	부가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교재 ● 정보습득을 위한 지식그림책 + 오디오 북 ● interactive multimedia(긴 대화, 단문 독해력 중심/문제은행식 문답채점 기능) ● 부모용 활동 지침서 (교재, 교구 활용법 +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가정보+학교준비)

● 학습 관리 모델 (총 40분)

가정의 어머니와 아동 한글교육의 상호교류적 역할 모델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할 교육이 수업시간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도록 한다.

표 15. 학습관리모델

순서	구분	학습관리 내용		소요 시간
		회원 및 학부모	교사	
1	입실 인사	인사 및 학습준비	학부모에게 인사한 후 따뜻한 마음으로 회원을 안아주며 자리에 앉으며 학습준비를 한다	2분
2	지난 주 교재	결손부분에 대한 학습 확인	전주에 학습한 내용을 점검한다. 지난주에 대한 교재를 회원과 상호작용하며 복습시킨다. 지난주 “이야기 나라“(가칭)를 1회 읽어준다.	7분
3	이번 주 교재	학습 동기 유발 및 이번 주 주제 이해	이번 주 교재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대해 학습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번 주 학습할 내용으로 즐겁게 수업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나라“를 2회 읽어준다.	15분
4	마무리 상담	학부모와의 교육 및 상담 시간	가이드북안 제공하며,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상담해준다.	15분
5	마무리 인사	끝인사	사랑스런 마음으로 회원을 안아주며 인사한다.	1분

● 교육자료개발

표 16. 교육 자료 개발 내용과 기대성과

	내용	성과
교수법 개발	-신규교사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진행 -주 2회 지국 교육에서 교육 진행 -교사 업무 사이트에 상담지도 방법 및 -매뉴얼 탑재 / 교사 가이드북 개발	교사들이 현재는 말이 잘 통하지 않은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 서비스 질 향상의 효과
부모 가이드북 개발	자녀 지도 방법 및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학습법 지도	내용복습을 위한 워크시트를 통해 학습효과 배가
부모상담	썸크맘 스쿨 운영	월 1회 이상 이주여성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지도 방법 및 부모양육 효능감을 높임

* 썸크맘 스쿨이란? 썸크빅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학부모 교육정보 강의를 지칭함

(4) 교재 개발 추진 일정

교재 개발의 추진 일정(총 11개월)

출시 일 : 2009년 1월 / 출판, 편집 기획 : 2008년 2월 1일~2008년 3월 30일(2개월)

편집실무 : 2008년 4월~2008년 11월(8개월)

개발 완료 보고서 작성 및 교사 매뉴얼 개발 : 2008년 12월(1개월)

표 17. 교재개발 추진일정

일정 업무내역		2008년												2009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출판, 편집 기획	교재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근거자료로 가더미 작업														
	가더미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분석														
	개발 방향 수립														
	커리큘럼 확정														
	디자인 내지 포맷 및 표지 방향 확정(모니터링)														
	구성안 확정														
편집실무 작업	원고발주														
	원고 확인 및 확정														
	그림/ 사진 발주														
	그림 확인 및 확정/ 완성														
	주판 교정/ 교열														
	필름 출력/ 혼소리 교정														
출시(기타)	인쇄														
	교사매뉴얼 개발 및 현장 교육(관리자, 교사)														
	출시 후 교재 및 만족도 모니터링														

- 이상 제품개발방향을 마치며 이번 희망이 넘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진행되는 국립국어원의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Ardelt, M., & Eccles, J. S.(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Csikszentmihalyi, M.(1988). Motivation and creativity: Toward a synthesis of structural and energistic approaches to cognition. *New Ideas in Psychology*, 2, 159-176.
- Eccles, J., & Harold, R.(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Grant, N.(1987). Making the Most of Your Textbook: Keys to Language Teaching. Longman Group United Kingdom
- Hoover-Dempsey, K., & Sandler, H.(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 National Center for Family Literacy(2005). How improved literacy increases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or parent and children, their communities and the nation. Annual Report 2005.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2007). Speaking Korean for Beginners(Paperback), 한림출판사.
- Weaver, C.(1990). Understanding whole language: From principles to practice. Irwin Publishing.
- 국립국어원 한국어 세계화재단(2006). 초급 한국어 말하기. 한림출판사.
- 국립국어원(2006).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베트남어 초급. 여성가족부.
- 국립국어원(200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여성가족부.
- 국립국어원(200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 김갑현(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공공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섭(2001). 러시아 및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중섭, 강현화, 이정희, 김동은, 이명귀(2002). 한국어 중급 I, II,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 한국어교육부.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영순(2007a).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교육론. 한국문화사.

박영순(2007b). 다문화시대 언어교육 정책.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연구소 학술대회(12.8. 서울교대) 발표논문. 13-2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한국어1-4, (주) 문진미디어.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4). 한국어 1-6, 문진미디어.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2(3), 61-83.

오성배(2007).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186-213.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이준석(2007). 여성 결혼 이주민의 특성에 따른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 모색. 서울 교육대학교 초등 국어 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5-33.

이차숙(1999). 유아의 음운인식과 읽기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37(1), 389-406.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말이 트이는 한국어 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조영달(2006a).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2006b).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조준수(2004). 음운감수성 훈련이 5세 유아의 읽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9, 69-87.

최연실(2007). 도시 국제 결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야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 가정학회지, 44(11), 79-89.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2007). 한국어1 •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여성가족부.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기관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부록> 면담 기록지

I. 교사용

교사용 인터뷰 용지

기관 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특성					
교사정보	이름/	성별/	연령/	교사경력/	전공/
교수대상					
인터뷰 일시	년 월 일 시간: ~				
조사원					

1. 대상자 기본 정보

-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교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이외의 교육경력 및 내용은?
- 3) 다문화 가정 한글 교사 경력 기간
- 4) 이전의 교사 경험 및 경력

2. 기관 내 한글(한국어)교육

1) 교육 프로그램

대상:

교재:

프로그램 형태(주당 교육 시간/ 전공교사여부/집단 또는 개별교육):

없다면, 관련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2)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대상:

교재:

프로그램 형태(주당 교육 시간/ 전공교사여부/집단 또는 개별교육):

없다면, 관련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취학 전 한글(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취학 전 선행된 한글학습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 한글교육 교재

1)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교재의 특성

(기존 한국아동대상교재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기존 교재를 사용하는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지?

어머니용:

취학아동용(초중고):

취학 전 아동용:

2) 현재 사용교재의 장단점:

3) 현재 사용교재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또는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부모용의 부적합성>

내용면에서(예. 단일민족 특성을 강조하는 단원/문구/단어):

방법 면에서(예. 말하기 듣기 등 의사소통능력 배양보다는 문식성교육):

기타 의견

<아동용의 부적합성>

내용면에서(예. 단일민족 특성을 강조하는 단원/문구/단어):

방법 면에서(예. 말하기 듣기 등 의사소통능력 배양보다는 문식성교육):

기타 의견:

5) 부모의 참여 유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한글교육에 부모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동용 한글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이 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3. 한글교육 형태

1)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의 장단점 비교:

<부모 한글 교육>

집단 교육 장점:

단점:

개별 교육 장점:

단점:

<아동 한글 교육>

집단 교육 장점:

단점:

개별 교육 장점:

단점:

2) 특별히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한글교육의 형태는?

이로 인한 어려움이나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적절한 교육의 형태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3)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결혼가정의 모국어로 학부모와 함께 읽기공부를 한 학생의 언어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가?

학부모와 아동의 한글학습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기반 된 교육의 형태를 제안한다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방법)

4) 다양한 매체의 사용

한국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아동들에게도 직접적인 교수활동 이외에 멀티미디어와 같은 매체가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도움이 되겠는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가?

현재 한글교육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비디오, 만화, 게임기, 그림책, 학습지 워크지)

주로 사용하는 매체:

그 외에 사용하는 매체: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림책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책을 추천한다면?

부모 한글 교육의 경우:

아동 한글 교육의 경우: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이유: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사용하지 않는 지의 이유:

5)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학원이 없어 학습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대도시나 근교에서 생활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학습지를 이용하거나 방문교사가 찾아가 학습을 시키는 형태에 대한 의견?

방문 학습형태의 한글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문학습의 장점:

단점:

6) 일반 학습지나 한글 교육 워크북을 이용하고 계신지?

사용하신다면 어떤 학습지 워크북 인지?

장점:

단점:

4. 한글교육 내용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말보다는 한글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한글 받아쓰기나 지필평가는 잘 수행하는 편이나 학습활동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나, 정확한 발음, 논리적 언어구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한글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자유로운 개방형 답을 듣는다)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면?

-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기 ()
-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기 ()
- 철자대로 정확하게 쓰기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글 교육의 내용은?
(먼저 자유로운 개방형 답을 듣는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면?

-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기 ()
-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기 ()
- 철자대로 정확하게 쓰기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2) 취학한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생활과 준비물 등 학교관련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자녀의 한글교육 교재에 부모의 모국어 표기 또는 모국어 설명이 있다면 유용하겠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 취학 전 아이를 위한 한글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어휘나 문장 또는 text의 내용면에서)

5. 다문화 가정 한글교사 교육

1) 다문화 가정 한글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사 교육을 받았는지,
현재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2) 현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교사 교육의 문제점은?
바라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6.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교사로서

- 1)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의 분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2)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부모)에게 한글(한국어)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 본인의 경우 한글학습 교수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특별한 에피소드를 든다면?
- 4) 특별히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식은?
- 5)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

6. 다문화 가정의 가능성 및 한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가진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가진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한글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는가? (자유롭게)

II. 부모용

부모용 인터뷰 용지

대상	이름:	나이:	출신국:	학력: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한국체류기간				
한국어능력	한국어 학습 여부/ 구사 수준/ 상, 중, 하			
자녀	자녀수/ 취학전 아동여부/			
인터뷰 일시	년 월 일 시간: ~			
조사원	(통역여부/ 통역자/)			

1. 대상자 기본정보 (한국체류동기/ 가족관계 및 가족사항/ 지역생활환경 등)

- 1) 한국에 오신 계기는요?
- 2)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 3) 남편(혹은 부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지요?
- 4)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주변 환경은 어떠신지?

2. 한국어 교육 현황

- 1) 본인이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형태>:

현재 한글 교육은 받고 계신 곳은?

예전에 한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프로그램 형태는 어떠했나요? (주당 교육 시간/ 집단 또는 개별교육):

한주에 몇 시간?

그룹으로 배웠는지? 개별로 배웠는지?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어떤 내용의 한글교육이었나요?

교재는?

한글교육 내용에 만족하셨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바라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 2) 자녀(들)가(이) 받고 있는(받았던)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형태?

주당 교육 시간 :

집단 또는 개별교육: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은?

어떤 교재로 배우나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녀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불만족 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바라는 점은?

3) 취학 전 한글교육에 대한 의견

취학 전 한글(한국어)교육이 필요성을 어느 정도나 느끼고 계신지?

취학 전 한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취학 전 선행 한글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학업, 친구관계 등)

3. 한글교육과 관련된 어려움

1) 한글(한국어)교육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 본인이 한글 교육을 받는 경우:

자녀가 한글 교육을 받는 경우:

2)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글(한국어)교육을 시키거나 도와주려 할 때 경험한 어려움이 있다면?

3) 현재 자녀가 사용하는(혹은 사용했던) 교재에서 자녀나 부모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내용 면에서(예. 단일민족 특성을 강조하는 단원/문구/단어):

방법 면에서(예. 말하기 듣기 등 의사소통능력 배양보다는 문식성교육):

기타 의견:

4. 자녀의 한글교육에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의 한글 교육에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자녀의 한글교육을 도와주고 계시는지?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능한 하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자녀와 함께 집에서 책(그림책 포함)읽기를 하시나요?

한국어 책 읽기:

안한다() 한 주일에 한 두 번() 세 네 번() 매일한다()

하신다면 언제부터 하나셨는지?

부모님의 모국어 책 함께 읽기:

안한다() 한 주일에 한 두 번() 세 네 번() 매일한다()

하신다면 언제부터 하셨는지?

혹시 자녀의 한글 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앞으로 자녀의 한글교육에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5. 한글교육 형태

1)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의 비교:

집단과 개별 교육 중 어떤 형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교육:

자녀교육:

그 이유는?

본인:

자녀:

2) 현재 한글교육의 형태에서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한글 교육을 받고 싶으신지?

본인:

자녀:

3)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글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비디오:

게임기:

그림책:

만화:

학습지:

워크지:

기타: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4) 방문 학습형태의 한글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방문학습을 받고 있다면 그 장단점은?

장점:

단점:

5) 일반 학습지(워크북)를 이용하고 계신지?

어떤 학습지 인지?

장점:

단점:

6. 한글교육 내용

1)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한글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기 ()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기 ()

철자대로 정확하게 쓰기 ()

부모님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기 ()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기 ()

철자대로 정확하게 쓰기 ()

2) 취학한 후 자녀가 학교생활과 준비물 등 학교관련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한글교재에 부모의 모국어 표기 또는 모국어 설명이 있다면 유용하겠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 취학 전 아이를 위한 한글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어휘나 문장 또는 text의 내용면에서)

7. 한글교사의 자질

1) 한글(한국어)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2) 한글 교육 교사들에게 바라는 점은?

3)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한글교육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과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한글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는가? (자유롭게)

7. 미래에 대한 기대 및 예측

앞으로 부모님 자신이 한글을 잘 배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잘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자녀가 한글을 잘 배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잘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 연구원 : 김 민 화(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 신 혜 은(성균관대 아동학과 연구교수)
보조 연구원 : 정 혜 숙(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장 해 진(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본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발행인 장해진

발행처 웅진씽크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전화: 031-956-7175 팩스 031-956-7583

인쇄일 2007년 12월 24일

발행일 2007년 12월 24일

인쇄 해암 기획

